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6 호 6 월 15 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60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 6 호 (175)

1960년 6월 15일

차 례

권두언

화근은 뿌리 뽑아야 한다

조선에서 미제가 범죄적인 침략 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났다. 조선 인민과 전 세계 인민들은 아직도 이 전쟁의 참화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벌써 100년 전부터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로 등장한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자기의 강도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곳을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고 침략 전쟁 준비에 광분하였다.

조선의 자주적 발전에 관한 국제 공약을 유린하고 식민지 노예화 정책에 항거하는 남조선 인민들과 민주 력량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민족 분렬과 식민지 예속화의 도구로서 단독 괴뢰 정부를 조작하고 반동 세력을 규합 조장하며 민족 경제의 토대를 소탕하기 위한 악랄한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괴뢰군을 조직하여 남조선 각지에 륙해공군 기지 및 군사 시설들을 대대적으로 구축한 이 모든 것은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준비 조치였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전쟁 도발을 1주일 앞둔 1950년 6월 19일 미국의 전쟁 상인 덜레스가 남조선으로 날아 왔다. 38선을 시찰한 덜레스는 리 승만 도당에게 《북한에서 침입하였다는 역선전과 동시에 북한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하라… 만약 1주일만 견디여 낸다면 …유엔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륙해공군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지시하였다. 미제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유엔에 내놓을 《조선 전쟁》에 관한 《결의안》까지 미리 작성했던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동족 상잔의 내란을 도발하면서 조선의 범위를 멀리 벗어나는 과업을 내세웠다.

그들은 전 조선을 단숨에 강점하고 조선 전 지역에 미국의 지배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대륙에까지 침략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적 야망을 달성하려고 몽상하였다. 미제는 또한 조선 전쟁을, 자국을 가일층 파쑈화하며 자기에게 예속되여 있는 나라들을 일층 더 종속시키기 위한 구실로도 리용하려고 타산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파렴치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15개 추종 국가 군대들을 《유엔군》이란 명목하에 조선 전쟁에 내모는 한편 일본 점령군 사단의 거의 전부와 본토 《정예 사단》의 3분의 1, 항공 부대의 5분의 1, 《태평양 함대》의 대부분을 투입하였다. 그들은 또한 8년 간의 일본 경상 예산 지출에 해당하는 200억 딸라

란 거액의 전쟁 비용을 탕진하고 태평양 전쟁 시기의 그것을 11배로 릉가하는 7천 300만 톤의 방대한 군수 물자를 소모하였다. 실로 조선 전쟁은 1차 및 2차 대전을 제외하고 근대 전쟁 력사상 최대의 전쟁이였다.

침략적 야욕에 눈이 뒤집힌 미 제국주의자들은 무차별 폭격, 대량적 학살, 세균 및 화학 무기의 사용 등 천인공노할 만행으로써 조선 인민을 멸살하려고 날뛰였다. 원쑤들은 우리 인민에게 형언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그대들은 될 수 있는 데로 많은 조선인을 죽임으로써 미국 시민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라》고 한 펜타곤의 악당들의 명령을 집행하면서 미국 살인귀들은 문'자 그대로 우리 나라를 초토화하였다. 8,700개의 공장, 60만 동의 가옥, 5,000개의 학교가 파괴 소각되였으며 수십만의 무고한 인민들이 가장 야만적 방법으로 학살되였다.

실로 조선 전쟁 3년 간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가 세계 력사에서 류례 없는 가장 광포한 제국주의이며 약소 민족들에 대한 가장 파렴치한 압박자이며 교살자라는 것을 세계의 면전에 폭로하였다. 조선 사람의 가슴마다에는 미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원한이 깊이 사무쳐 있다.

그러나 미제의 《초토화 전술》도, 밴플리트의 《하기 공세》와 아이젠하워의 《추 공세》도 그리고 어떠한 잔악한 전쟁수'법과 야수적 만행도 결코 그들을 패배의 운명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과 조중 량국 군대의 영용무쌍한 투쟁에 의하여 그리고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강력한 압력에 의하여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우리 인민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조선 인민이 쟁취한 력사적 승리는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체험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인민은 그 어떠한 세력에 의하여서도 굴복될 수 없다는 것을 력력히 보여 주었다.

미 제국주의에 대한 조선 인민의 승리는 세계 평화 유지에 적지 않은 기여로 되였다.

조선 전쟁을 하나의 고립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전 세계를 전쟁에 휘몰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전쟁으로 정당하게 평가한 세계 인민들은 조선에서의 참화를 통하여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 그 얼마나 무서운 위험을 인류에게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각국 인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로 일층 궐기시켰던 것이다.

동시에 조선 전쟁의 결과 허장성세하여 《위력》을 자랑하던 미 제국주의자들의 《만능》에 대한 신화가 분쇄된 사실은 제국주의자들의 억압하에 있는 인민들로 하여금 미국의 《강대성》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남에 도움을 주었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원조에 의거하면서 원쑤를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한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을 굳게 하여 주었다. 조선 전쟁 이후 시기에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이 일층 앙양되고 그 투쟁에서 련대성이 강화된 사실은 우연하지 않다.

정전의 성립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 주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전체 조선 인민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화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 왔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며 정전 협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왔다. 우리는 쌍방의 군비를 최소한도로 축소할 것을 거듭 제의하였으며 솔선하여 8만 명의 조선 인민군 병력을 축소하였다. 1958년 2월 공화국 정부는 중국 인민 지원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 군대를 철거시킬 것을 제의하였는바 중국 인민 지원군은 이 제의를 접수하고 조선으로부터 완전히 철퇴하였다.

우리는 또한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래왕과 서신 련락, 경제적 및 문화적 련계, 정치적 협상의 길을 개척할 것을 루차 제기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사촉하에 괴뢰 도당은 이 모든 제의들을 거부하였으며 지어는 도탄에서 헤매는 남반부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화국 정부와 북반부 인민들의 동포애적 구원의 손'길마저 거부하였다.

조선에서의 평화의 공고화와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우리의 모든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쑤들은 정전이 성립된지 7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국 땅에서 물러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부단히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며 군비를 확장하고 전쟁 재도발을 준비하는 데 광분하고 있다.

원쑤들은 우선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예견한 《정치 회의》의 소집조차 파탄시켰다. 1953년 10월에는 침략적인 《한미 호상 방위 조약》을 조작하였으며 뒤이어 《군사 및 경제 원조에 관한 한미 량국 의정서》를 조인하였다. 이로써 원쑤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점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괴뢰군에 군사 장비를 마음 대로 공급하고 있다. 1957년 6월에는 조선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소위 《유엔군 사령부》를 서울로 이동시켰으며 뒤이어 중립국 시찰 소조들의 사업을 봉쇄하고 각종 원자 및 유도 무기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였다. 최근에는 《반공》의 구호 밑에 수차에 걸친 《원자 기동 연습》, 《상륙 작전 연습》, 로케트 및 원자포 《시험 사격》 등등으로 남조선 인민들을 위협하며 긴장 상태를 조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제는 괴뢰군을 정전 당시의 16개 사단으로부터 31개 사단으로 확장하고 군사 분계선에서 적대적 도발 행동을 계속 감행하고 있는바 정전 후 1959년 10월 14일까지 우리측이 정식 항의한 것만 하여도 무려 863건에 달한다.

전쟁 재도발 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경제를 자기들의 군사적 목적에 완전히 복종시키고 남조선 인민들의 고혈을 최후의 한 방울까지 짜내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 침략과 경제적 략탈을 《원조》라는 간판으로 분식하고 있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남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소위 원조는 그들의 군사 침략 정책과 무제한한 략탈의 수단에 불과하다》(김 일성,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1차 회의에서 한 연설).

미제 침략자들은 전후 시기에 《원조》의 명목하에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략탈을 더욱 철면피하게 강행하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 경제를 완전히 미국 독점 자본에 예속시켰으며 남조선 경제를 계통적으로 파괴하고 남조선을 자기의 전략 원료 조달지로, 독점적 상품 시장으로 전변시켰다. 미제는 1945~1958년 간에 24억 9천 300만 딸라의 잉여 상품을 《원조》 형식으로 남조선에 투입한 대신 42억 8천만 딸라의 중요 물자 등을 남조선으로부터 략탈해 갔다.

오늘 남조선의 공업 총 생산액이 해방 전의 절반으로 축감되고 공장, 제조소들의 80%가 휴업 또는 조업 단축 상태에 빠져 있으며 로동 능력 있는 인구의 절반이 실업자 또는 반 실업자라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의 후과이다. 남조선에서 알곡 총 수확고가 해방 전의 60%로 감소되여 인민들이 만성적 기아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것도 미제 략탈 정책의 필연적 결과인 것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오늘 남조선에서 예속 자본가, 지주들을 발판으로 삼고 괴뢰 정부의 막 뒤에 앉아서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부면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전대미문의 중세기적 암흑 테로 통치를 수립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쑤들은 남조선에서 전쟁 시기에 수 많은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으며 1955~1959년 간에만도 81만 1,700 여명의 인민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실로 남조선 인민들은 말 한마디 마음 대로 못하는 무권리 속에서 살아 왔다. 원쑤들의 폭압이 얼마나 심했던가 하는 것은 전쟁 시기에 그들이 감행한 대량 학살 만행이 1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백일하에 폭로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 하나만 지적해도 충분할 것이다. 원쑤들의 대량적 학살 만행은 지금도 계속 폭로되면서 있다.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은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모든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생지옥으로 몰아 넣었다. 그러나 그 략탈자, 압박자들 자신도 사회 발전의 법칙으로부터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남조선에는 그 누구의 의사와도 관계 없이, 인민들은 더는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며 원쑤들도 더는 종전의 방식 대로 통치할 수 없는 혁명적 정세가 조성되였다. 이것은 해방 후 15년 간에 미제 식민지 통치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다. 남조선 인민들의 영웅적 봉기는 만고 역적 리 승만을 쫓아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이 떠벌리던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면을 벗겨 버렸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성과들은 남반부에서의 사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며 또 주고 있다.

원쑤들은 우리 인민이 전쟁의 참화로부터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원쑤들은 또 한 번 오산하였다. 전후 시기에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 제도가 전면적으로 승리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철통같이 단결된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사회주의 건설에서 다시 한 번 자기들의 힘과 영웅성을 유감 없이 시위하였다.

우리 인민은 전후 몇해 동안에 전쟁의 피해와 력사적으로 물려 받은 경제의 락후성을 청산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였으며 나라를 락후한 농업국으로부터 선진적 공업-농업국으로 전변시켰다. 오늘 우리 로동 계급은 해방 전 1944년 1년 동안에 생산하던 공업 생산품을 55일 간에 생산한다. 농촌 경리도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였다. 식량이 부족하던 북반부에서 식량 문제는 이미 해결된지 오래다. 전체 인민들은 무료로 치료를 받으며 교육을 받고 있다. 지금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이 각급 학교에서 무료로 공부하고 있다.

이러한 빛나는 성과들이 기아와 무권리의 생지옥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인민들을 고무하여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우리 당의 민주 기지 로선과 평화적 조국 통일 로선의 승리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생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하여 항쟁에 궐기한 인민들에게 총포의 세례로써 대답하게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땅크도 총포도 격노한 대중을 위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자 미제국주의자들은 간교하게도 리 승만 대신 다른 괴뢰를 내세우고 마치도 인민들의 요구를 들어 주는듯이 가장하면서 그들을 기만하려 하는 한편 인민들을 계속 잔혹하게 탄압하면서 뒤흔들리는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 기구를 정비 강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미제 상전의 지시 밑에 허 정 도당과 반동 정상배들은 괴뢰 국회에서 리 승만 파쑈 《헌법》을 각색해 가지고 《개헌》이요, 새 《선거》요 하며 떠벌리고 있다. 이것은 새로 등장한 반동 통치배들이 인민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도적질 하는 것이며 대중을 우롱하는 것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일시 마비 상태에 빠졌던 괴뢰 통치 기구를 《국무원》과 《국회》로부터 하부 말단에 이르기까지 재정비하는 데 몰두하고 있으며 지어는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 군대를 증강하려고까지 시도하고 있다.

남조선에는 아직도 계엄령이 철회되지 않고 있으며 허 정 도당은 상전의 지시에 따라 《공산 5렬의 발호》를 방지한다는 낡아빠진 구실 밑에 생활상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어선 인민들과 지어는 학살된 부모 친척들의 원쑤를 처단할 것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까지도 가차 없이 탄압하고 있다. 새로 발족하는 혁신적 정당, 사회 단체도 탄압을 받고 있다.

봉기 이후 3개월 동안 인민들이 무수히 피를 흘렸고 리 승만이 타도된지도 두 달이 넘는 오늘 아직도 인민들의 정치 경제적 형편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바로 미제 침략 군대가 계속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으며 괴뢰 통치 기구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 미제 침략자들이 남조선 땅에 머물러 있고 그들과 그 주구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과연 인민의 요구가 충족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

는가.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투쟁도 종식될 수 없다.

미제가 물러 가지 않는 한 우리 조국이 통일될 수 없으며 조국이 통일되지 않고서는 파국에 빠진 남조선의 경제와 인민 생활이 구원될 수 없다.

모든 문제의 화근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에 있으며 출로는 오직 화근을 뿌리 뽑는 데 있다. 미제 강점자들이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 가야만 한다.

우리 조국은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전체 조선 인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통일되여야 한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이 지속되고 남북 조선 인민들의 자유로운 접촉과 협상이 실현되지 못하는 조건하에서는 남조선에서 그 누가 정권에 들어 앉아도 조성된 심각한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파국을 수습할 수는 없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는 도탄에 빠진 남조선 인민들의 절박한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튼튼한 물질적 토대가 구축되여 있다. 북반부의 풍부한 부원과 강력한 경제 토대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여지없이 파탄된 남조선 경제를 복구할 수 없으며 극도에 달한 남조선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 처지를 개선할 수 없다.

미제 침략 군대는 물러 가야 하며 조선 문제는 남북 간의 접촉과 협상에 의하여, 전체 조선 인민의 민주주의적 의사에 기초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폭압과 기만의 방법으로 15년에 걸쳐 남조선을 강점하고 인민들을 노예화하여 온 미제 침략자들은 오늘에도 계속 남조선 인민들을 회유하며 탄압하는 방법으로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 지반을 유지 공고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남조선 사태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 더는 남조선 인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할 수 없으며 그들의 어떠한 폭압 기구도 각성되고 단결하여 항쟁에 일며 선 인민 대중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배들을 반대하여 절박한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요구하는 투쟁은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중소 상공업자, 청년 학생, 인테리 등 각계 각층 인민 대중 속에서 계속 타번지고 있으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앉아서 굶어 죽기보다는 일어서 싸우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의 투쟁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력사의 법칙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오늘 비단 남조선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는 일본과 대만, 남부 월남 등 세계의 도처에서 인민 대중의 치렬한 반대 투쟁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랭정하게 바로 볼 줄 모르며 또 보려고 하지 않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계속 전쟁의 방법으로 세계 제패의 야망을 달성해 보려는 모험적 흉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긴장 상태를 조성하며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우리는 100 여만의 미국 군대가 70 여개 국가와 지구들에 주둔하고 있으며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주위에는 250 여개의 미국 군사 기지가 설치되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미제 침략 계층은 특히 서부 독일과 일본에서 군국주의를 재생시켜 이 나라들을 다시금 동서방에서의 전쟁의 책원지로, 원자 전쟁 기지로 만들기 위해 갖은 파렴치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나토는 서부 독일이 원자 무기를 생산하는 데 대한 금령을 취소하였다. 미제 침략자들은 일본에서의 미군의 장기 주둔과 원자 기지 설치를 예견하는 일미 군사 동맹 조약을 일본 인민의 치렬한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기시 도당과의 사이에서 강도적이고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성립시켰다.

미제 침략 계층의 새 전쟁 준비 흉책은 쏘련에 대한 간첩 비행을 감행하고 이를 자국 대외 정책의 원칙으로 선포하며 4렬강 수뇌자 회의를 파탄시킨 가증할 행위에서 더 한층 로골적으로 표현되였다.

미 제국주의는 우리 인민의 원쑤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사회주의와 민족적 독립을 지향하는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불구 대천의 원쑤이다. 미 제국주의자와 전쟁은 떼여서 생각할 수 없으며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평화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일본에서, 대만에서, 세계의 도처에서 피묻은 손을 떼야 하며 살인 무기들을 걷어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인민 대중은 부단히 경각성을 높이고 력량을 단합 강화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만 미제 침략자들의 도발 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할 수 있으며 그들을 물러 가게 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적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은 세계 평화와 사회주의의 위업에 기여하며 세계 평화와 사회주의 력량의 강화는 우리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전면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에 관한 쏘련의 새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군비 철페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진보적 인민들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한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 및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의 통일 단결의 강화는 우리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믿음직한 담보이다. 우리는 쏘련 인민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형제적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을 계속 강화할 것이며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의 단결을 공고화할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 가라!

당 정책과 지방적 창발성

서 을현

당 정책과 지방적 창발성은 객관 세계에 존재하는 일반성과 특수성의 표현으로서 호상 유기적으로 통일되여 있다.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은 더욱 넓은 범위에서 보다 심오하고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부단히 변화 발전되고 있다.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작용하는 일반적 합법칙성은 당 정책의 객관적 타당성을 증명하면서 보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고 있다.

생활의 변화와 발전을 주시하고 있는 우리 당은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전일적 지배, 사회적 생산력의 비약적 장성과 관련하여 조성된 새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여 공업 관리 체계의 개편, 지방 당, 국가, 경제 기관들의 기능과 문제 처리에서의 자립적 권한 확대와 같은 새 조치를 취하였다.

지방 당 기관들이 당 정책의 일반적 요구와 당해 지방의 구체적 실정을 깊이 연구하며 실지 사업에서 당적 원칙성과 지방적 창발성을 능숙하게 결합시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현 시기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당 규약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매개 당 단체는 자기의 지역적인 문제를 자립적으로 토의 결정한다. 그러나 지역적 문제의 자립적 결정은 당 규약 및 당 상급 기관의 결정과 모순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당 건설의 초석인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의 필연적 요구이다.

당 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떠난 진정한 창발성, 지방적 창발성을 떠난 당 정책의 정확한 집행이란 있을 수 없다.

* *

당 정책을 철저히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것은 지방적 창발성의 첫째가는 전제 조건이다.

우리 당 정책은 조선 현실에 적용한 맑스-레닌주의로서 우리 혁명 발전의 가장 곧바른 길을 가리켜 주며 우리의 모든 사업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업들과 그 해결 방도를 명시해 준다. 즉 당 정책은 조선 혁명 수행에서 그의 앞길을 밝혀 주는 등대이며 문제 해결에서 기준으로 되는 자와 같다.

우리 당은 혁명의 매 발전 단계에서 해결을 요하는 성숙된 문제들을 포착하여 그에 대한 해결 방도를 제시해 주며, 수백만 대중의 실천적 경험과 지혜를 부단히 흡수 일반화한 로선과 정책으로 타침판과도 같이 당과 대중을 유일한 사상, 행동에로 결속시키며 그들을 항상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

당 정책을 철저히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이것은 매개 당원들의 첫째가는 의무이며 지방 당, 국가, 경제 기관들의 모든 활동의 기본으로 된다.

당 정책은 말단의 지역적 및 생산적 단위에 조직된 각급 당 단체들의 다양한 조직 정치 사업과 수백만 대중의 무한히 복잡하고 다양한 구체적 실천 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 정책의 창조적 적용, 지방적 창발성은 당 정책을 떠나 제멋 대로 행동하거나 당 정책을 외곡 집행하는 것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그러나 지난 시기 우리 도에서 장 순명, 고 봉기 등 혁명의 배신자들은 당 정책을 외곡 비방하면서 당 우에 자기의 《개인적 총명》을 내세우려고 음흉하게 책동하였다. 그들은 종종 《지방적 특수성》, 《지방적 창발성》을 당 정책보다 높은 자리에 놓으려 하였으며 그것을 당 정책의 본질과 기본 정신을 거세하는 《구실》로 삼았다.

우리의 경험은 당 정책의 일반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 지방주의와 자유주의를 산생시키며 반대로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반성의 발현 형태인 구체성,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은 당 실지 사업에서 교조주의, 주관주의를 산생시킨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지방주의, 가족주의 여독을 철저히 청산하지 않고서는 당 정책을 옳게 관철할 수 없다고 하신 수상 동지의 교시의 생활력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있다.

수상 동지는 3월 교시(1959년 3월 23일 조선 로동당 함북도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 《함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당의 참모부인 당 중앙 위원회의 지시와 결정에 의하여 전 당이 한사람과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여야 한다.

지도부에서 〈앞으로〉 할 때 가지 않겠다고 뒤에서 우물거리거나 〈좌로〉 하면 우로 달아나는 현상이 당내에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고 있는 지방주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당 정책을 무조건 집행하며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투쟁할 때 그곳에서는 온갖 창발성이 용솟음친다. 당 정책의 원칙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것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투쟁—바로 이 과정에서 창발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창발성은 평탄한 과정에서가 아니라 난관을 극복하는 투쟁 과정에서, 당 정책을 옹호 관철하려는 혁명적 열정에서 생긴다.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것은 당 결정 지시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 행동의 진실성 여부를 구분하는 분기점이며 당적 원칙성과 지방적 창발성을 결합시켜 주는 실제적 계기인 것이다. 난관이 없는 전진을 상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쟁이 없는 평온 상태에서 그 어떠한 창발성도 생길 수 없다.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고 있는 근로 대중과 로력 혁신자들이 발휘하는 무진장한 창발력이 자기의 당, 인민, 수령에 대한 그들의 지극한 사랑과 목적에 대한 자각, 당 정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백절불굴의 불타는 혁명 정열에서 흘러 나오며 난관과의 무수한 투쟁의 반복 과정에서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실생활은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당 정책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것을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며 창발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 정책의 본질을 깊이 파악해야 한다.**

당 정책은 주관적 창조물이 아니라 발전하는 객관적 현실과 대중의 실천적 경험에 토대하여 이루어진 산물이다.

당은 수백만 대중의 혁명 투쟁의 실천적 경험을 맑스-레닌주의적 통찰력을 가지고 리론적으로 분석, 종합, 일반화함으로써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나라의 전반적 발전의 지향에 부합되는 공통적인 행동의 지침을 준다.

그렇다고 하여 당이 부단히 변화 발전하는 각이한 시간과 조건에서 진행되는 무한히 다양한 수백만 대중의 구체적 행동만큼 구체적인 결정이나 지시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구체적 지시를 준다면 그것은 객관 세계의 공통적 합법칙성과는 동떨어진 개개의 현상에 대한 단순한 설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당 정책의 강령적 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매개 결정 지시는 일반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되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매개 지방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되는 구체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당 정책의 본질, 그의 일반적 요구, 당적 원칙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만 당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창발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당 정책을 파악한다는 것은 모든 정책을 관통하고 있는 객관 세계에 대한 변증법적 사고 방식, 당 군중 로선의 기본 요구, 개별적 결정 지시들이 추구하는 목적, 목적 달성의 공통한 방향, 력량 포치의 중심, 선후차, 실행 방법들을 정확히 리해하고 자립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하며 이에 토대하여 창발적으로 자기의 구체적 과업을 더 많이 찾아내며 당 정책의 적용 범위를 창조적으로 확대시키며 실지 정황에 따라 대담하고 신축성 있게 사업을 전개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도 일'군들은 당 정책 연구에서 그의 본질, 기본 요구를 충분히 파악함으로써만 이것을 척도로 하여 실생활의 무한히 복잡하고 다양한 구체적 현상들의 내부적 련관성, 공통점과 구체적 차이점을 정확히 분간할 수 있으며 당 정책을 당 중앙의 의도에 부합되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당 정책을 형식적으로 《연구》한다면 기본 사상을 파악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당 정책을 교조적으로 해석하고 실지 사업에서 천편일률식—기계적 방법을 적용하게 되는바 이 방법은 발전의 객관적 행정에 모순되기 때문에 구경은 일면성을 면치 못하게 되며 주관주의적 오유와 결함을 산생시키는 것이다.

당 결정 지시를 통채로 삼키고 기계적으로 내려 먹이는 데는 일정한 기억력과 사무 능력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당 정책을 진실로 파악하고 창조적으로 적용하자면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변증법적 사고 방식, 군중에 대한 혁명적 관점을 소유하여야 하며, 실천적 경험, 자주적 판단력, 혁명적 전개력과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혹자가 자기의 《총명》만 믿고 당 정책을 한 번 읽어 보고는 벌써 다 알았다고 속단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가 총명치 못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가 가장 주목을 돌리고 있는 문제는 당,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결함으로 되고 있는 당 정책에 대한 형식적 《연구》, 교조적 해석, 기계적 집행의 경향성들과 군중의 리익을 침범하는 행정식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다.

아직도 당 사업에서 지방적 창발성의 결여, 교조주의적 태도는 우리의 모든 전진 도상의 큰 장애물로 되고 있다.

수상 동지는 일찌기 청소한 당에의 교조주의 침습의 용이성과 해독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면서 따지'자 우에 쓴 하늘천'자만을 아는 독경주의자들,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교조주의자들, 오유를 겁나 소심하고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소부르죠아적 근성의 소유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의 두뇌를 못 가진 인형극의 인형과 비유하였다.

아직 일부 지도 일'군들은 당 정책의 본질과 창조적 성격을 깊이 리해하지 못하고 인형과 비슷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상 동지의 3월 교시에는 당, 국가, 경제 기관들의 지도 사업의 모든 령역 혹은 일정한 부문에 반드시 적용하여야 할 수 많은 일반적 진리들이 포함되여 있다.

생활은 이미 3월 교시의 기본 정신과 일반적 진리들이 간부들과 대중들에게 파악되고 그것이 지방적 창발성과 결합된 곳에서는 례외 없이 당, 국가, 경제 건설의 모든 령역에서 거대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실증하고 있다.

3월 교시에서 수상 동지는 바다를 끼고 산이 많고 자그마한 벌판밖에 없는 함북도의 자연 경제적 조건과 특성을 분석하시고 목축업과 어업에 중점을 두고 밭곡식도 목축업을 발전시키는 데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원칙을 더욱 전개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대체로 산지에서는 반농 반목축업을 하며 해안 지대에서는 반농 반어업도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농산만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은 반농 반어 반목축업을 위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산을 잘 리용하고 바다를 잘 리용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수상 동지는 어느 군 어느 협동 조합에서 무엇을 위주로 하여 농촌 경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개별적 지시는 주지 않고 있다. 다만 모든 협동 조합들에서 그것을 각각 정확히 규정할 수 있는 강령적 지침—일반적 척도만을 주고 있다.

이 일반적 척도를 가지고 자체의 구체적 실정을 어떻게 측정하며 실천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 정책에 대한 지방 당 기관들 특히는 시, 군 당 위원회들과 초급 당 단체들의 관점과 방법

에 의존되는 것이다.

3월 교시를 깊이 연구하고 그의 기본 정신과 창조적 성격을 옳게 리해한 시, 군 당 위원회들은 이 교시의 척도를 가지고 매개 농업 협동 조합들의 공통성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실정에 알맞게 지도한 결과 많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경리를 합리적으로 개편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회령군에서는 수상 동지의 교시를 군의 자연 경제적 조건에 알맞게 창발적으로 실행하여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산간 지대인 풍산리만 보더라도 작년에 94정보의 경지에 사탕무우를 재배하였으며 한편 자연 사료를 최대한 리용하여 돼지와 특히 초식 가축인 토끼, 소, 면양 등 축산업을 발전시키며 산을 리용하여 다각 경리를 발전시킨 결과 례년보다 알곡 수확을 높이고도 호당 현금 수입이 1958년의 근 4배인 778원에 달하였다.

반면에 경성군 인민 위원회 지도 일'군들과 같이 당 정책에 대한 깊은 연구도 없이 《소채 일반》만 보고 적지가 아닌 논을 페답하여 소채 생산을 하도록 룡산리에 내려 먹인 결과 70정보의 논에서 소채의 완전 무수확을 내게 하였다.

바로 이러한 관점과 방법 때문에 3월 교시를 창조적으로 실천하여 많은 곳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을 때 일부 시, 군 당 위원회들은 3월 교시와 하부 실정을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연구하지 않고 주관적 해석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농사일을 홀시하고 목축 일면만 일반적으로 강조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내려 먹인 결과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무원칙한 페경, 알곡 면적의 대폭축소, 농산 로력의 분산, 농작물 비배 관리의 차요시, 개인 가축의 조급하고 무원칙한 통합, 공동 가축의 조합별 단일적 전문화 등으로 큰 손실을 보게 하였다.

도내 공업 부문의 일부 지도 일'군들도 3월 교시를 협애한 관점을 가지고 독경식으로 연구함으로써 많은 부분을 암기는 하였으나 자기의 실지 사업에 구체화하지 못하고 교시의 적용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었으며 응당 해야 할 자기의 일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3월 교시에서 수상 동지는 《…일부 지도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서 아직까지 중심을 모르며 중점을 잡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일하다나니 이것도 저것도 못 하고 있다》고 청진 제강소의 실례를 들어 지적하면서 이 결함을 시급히 시정할 데 대한 기본 원칙들과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원칙과 과업들은 그 후 6개월이 경과한 지난 해 9월 황철에서 하신 교시의 기본 정신과 합치되는 것이였다.

만일 우리가 이 교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 정신을 제때에 파악하여 농업도 포함한 모든 인민 경제 분야에 이 진리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더라면 오늘과 같은 거대한 전변이 이미 오래 전에 일어났을 것이며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생산력과 인민 생활은 보다 높은 단계에 도달하였을 것이다.

지난 해 경험들은 정확한 당 정책도 그것이 지방 당 일'군들에 의하여 외곡 집행되는 때 얼마나 큰 오유와 결함을 산생시킬 수 있는가를 충분히 보여 주었다.

당 중앙과 수상 동지의 깨우침만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였으며 집행상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지도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당 정책에 대한 협애한 관점과 소극적 태도가 빚어낸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그의 해독성을 인식시키며 당 정책 연구에서 일반적 진리, 기본 정신을 파악하도록 도와 주는 것은 당 정책을 지방 실정에 알맞게 구체화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당 정책의 집행에서 지방적 창발성을 발휘하려면 하부 실정을 료해하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극히 필요하다.

각 도, 시, 군, 리들과 기관, 기업소들은 서로 각이한 장소에 놓여 있으며 그를 둘러 싸고 있는 주위 환경도 각이하며 사업 내용도 같지 않다.

만일 자연 경제적 조건들과 함께 사람들의 언어, 풍습, 례절, 계급 구성, 의식 상태, 문화 수준의 차이까지만이라도 고려한다면 그 차이가 어느만큼 무한정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사실상 세상에는 꼭같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세상에는 또한 모든 것에 공통한 것을 이런 혹은 저러한 정도로 내포하고 있지 않는 그런 것이란 하나도 없다.

지방 당 기관들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당 정책의 파악과 파악된 당 정책의 척도를 가지고 집행의 조직에 하부 실정에 대한 료해 사업을 선행시킴으로써 당 정책과 구체적 현실의 련계를 맺어 주는 것이다.

당 정책과 실정에 대한 파악이 결합된 기초 우에서만이 자기의 주견을 세울 수 있으며 주견이 서야만 집행의 구체적 방향과 방법을 정확히 규정하고 책임 분공과 지도 검열의 조직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며 신심을 가지고 하부 일'군들에게 강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대담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하부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방해로 되는 것은 형이상학적 사고 방식과 그의 산물인 형식주의적 사업 방법이다. 이 사고 방식의 일반적 특징은 당 정책과 하부 실정의 내부 련계를 보지 못하며 대중의 실천 활동을 정지와 불변의 상태에서 피상적으로 관찰하며 생활 속에서 부단히 창조되는 새 것과 그의 혁명적 의의를 리해하지 못하고 내용보다 형식에 치중함으로써 주관과 낡은 방법의 틀 속에 약동하는 생활을 얽매여 두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데도 우선 맥부터 보고 무슨 병인지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민들의 실정을 모르고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신 수상 동지의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하부 실정에 대한 료해가 우선 인민 대중의 생활 속에서 진행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먼저 근로자들이 무엇을 먹고, 입고, 쓰고 어떻게 살며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며 그들이 무엇에 관심하고 있으며 희망하며 요구하는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단되지 않는 객관 세계 발전에 대한 주시, 예민성,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구체적 내면 생활에로의 적극적 침투, 창발적 발기—이것은 모든 지방 당 기관들의 사업을 관통하고 있어야 한다. 정확한 료해를 위하여서는 대중 속으로 특히 기본 군중, 적극 분자들 속으로,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능력 있는 간부가 들어 가야 하며 되도록 더 많은 사람과 다각도로 《연설》이 아니라 담화를 하며 의논을 하며 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야 한다.

특히 담화는 지도와 대중을 련결시키며 지혜의 호상 교환, 갱신, 풍부화를 가져다 주며 당 정책을 침투시키며 하부 실정을 료해하며 당 기관에 창발력을 흡수하여 들이는 중요 형식의 하나이다.

만일 우리가 구체적 현실 속에서 자고 깨고 일하며 사고하는 로동자들, 협동 조합원들과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하였더라면 지난 해의 오유와 결함은 충분히 면하였을 것이다.

현실과 군중을 무시하는 자들을 특징지으면서 수상 동지는 3월 교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이 관료주의자들은 군중 속에 들어 안 가고 군중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코'대를 잔뜩 처들고 다니고 두마디 안팎으로 욕설만 하고 군중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만 제일 잘났고 자기의 의견이 제일 옳고 남의 의견은 다 나쁘다고 하면서 들어도 안 보고 덮어 놓고 열닷량'금으로 내려 먹이기만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엇이 되겠는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료해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지도 일'군들 중 많은 사람들은 주관적으로는 자기가 마치도 당 정책에 충실하고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는듯한 환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 작풍의 소유자들은 공명심에 사로잡혀 당 정책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대로 일하고 있다.

우리는 간부들에게 주관주의와 관료주의의 해독성을 인식시키며 그것을 속한 시일 내에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온갖 지방적 특수성을 관통하고 있는 일반적 합법칙성을 보지 못하며 하부의 구체적 실정과 군중의 여론과 의견들을 당 정책이 준 과학적 척도를 가지고 잴 줄 모르고 개별적 현상이나 개별적 사람들의 락후한 의견, 림시적 리익의 뒤꼬리를 따라 주견 없이 방황하는 추미주의와 그의 해독성에 대하여서도 경계하고 있다.

당 및 국가적 지도에서 추미주의는 당의 향도력을 약화시키며 군중 운동을 자연 발생성에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당의 군중 로선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으며 그의 해독성에 있어서 관료주의만 못지 않다는 것을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계속 인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 기관들이 사업 과정에서 발휘하는 지방적 창발성이란 본질에 있어서 그 어떤 《총명》한 사람의 개인적 창발성이 아니라 집체적, 대중적 창발성이다.

당적 지도의 최고 원칙인 집체성을 고수하는 것은 대중의 지혜를 지도적 기관 내에 부단히 흡수하여 들이며 당 정책을 창조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조건이다.

도, 시, 군 당 전원 회의, 열성자 회의, 집행 위원회들, 각종 경험 교환회, 강습 등은 이미 발양된 대중의 창발성을 흡수 일반화하는 중요 형식들이며 새로운 창발에로 추동하는 계기로 된다.

그러나 지도의 본질이 사무실이나 회의실 안에서 창조된 경험의 일반화에만 국한될 수 없다.

지도의 진정한 본질은 온갖 창발성의 영원한 샘터인 산 생활, 새 력사의 창조자—당 정책의 실천자들인 근로자들이 있는 작업 현장에, 갱내에, 건설장에, 바다에, 포전에, 축사에로 더욱 접근하며 산 사람들과 창조적으로 사업하는 것이다.

지도 일'군들은 당 정책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모든 생활 속에, 그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당의 기층 조직—초급 당 단체들에 구체적으로 침투하여야 한다. 지도 일'군들은 현실의 단순한 설명, 일반적 호소에 그치지 말고 당 조직과 대중의 잠재력을 계발, 조직 동원하며 설복과 해석에 국부적 모범의 의식적 창조에 의한 실물 교육의 방법을 배합시켜 로동과 생활이 제기한 성숙된 문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대중의 집체적 지혜와 창조적 적극성은 전능하다. 문제의 초점은 대중을 더 자각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당원들에 대한 당적 위임의 명확한 분공, 검열, 총화—이것은 자기의 당적 임무에 대한 자각, 영예감, 자부심을 불러 일으키며; 책임감, 창발력과 선봉적 역할을 제고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며 비당원 대중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 고리의 하나로 된다.

새 환경은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의 가일층의 제고를 요구하며 군중의 혁명적 열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의 향도적 역할의 의의는 더욱 제고된다.

당 정책의 정당성이 생활에서 충분히 검증되였고 군중의 각오 정도가 비상히 높아진 현 조건하에서 청산리 당 단체에 대한 수상 동지의 지도 방법의 모범을 따라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대담하게 분쇄하고 당 사업 체제와 방법을 변천된 새 환경의 요구에 적응시키며 당 정치 사업과 조직 사업을 더욱 실속 있게 구체적으로 전개하여 기층 조직인 초급 당 단체들의 전투적 기능과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가일층 제고하는 것은 현 시기 도, 시, 군 당 단체들의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임무로 된다.

모두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와 근로 대중의 영웅적 기개에 튼튼히 의거하여 모든 창발성을 다하며 당 정책의 기'발을 끝까지 고수하고 관철시켜 혁명의 종국적 승리와 우리 인민의 부유하고 행복한 미래를 더욱 앞당기자.

쌍마 전진은 농업에 대한 공업의 전면적인 방조를 요구하고 있다

김 승 준

우리 나라의 공업-농업국에로의 전환은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공업의 지도적 역할의 제고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다.

이것은 공업 농업 총 생산액에서 공업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현저한 변화에서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그 때에는 농업이 나라의 살림살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공업은 자체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된 오늘의 조건하에서 사정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공업 농업 총 생산액에서 공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고 사회주의 공업화의 토대가 구축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국가 살림살이가 기본적으로 로동 계급의 창조적 로동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공업에서의 수입과 축적에 의하여 꾸려지게 되였다.

해방 후 공업 농업 총 생산액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여 왔다:

	공업 농업 총생산액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1946	100	28.2	71.8
1949	〃	46.7	53.3
1956	〃	60.1	39.9
1957	〃	63.4	36.6
1958	〃	68.6	31.4
1959	〃	70	30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 경제에서 공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된 사정은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공업의 새로운 약진을 위하여 농업을 종전보다 더욱 급속한 템포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업화에서 지난 기간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공업-농업 국가로부터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전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하루 바삐 완성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공업 발전에 적응하여 농업을 발전시키며 공업과 농업을 유기적으로 옳게 련결하여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공업과 농업; 이 두 부문은 서로 련결되여 있기 때문에 분리되여서는 성과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강력한 사회주의적 현대 공업이 없이는 발전된 사회주의 농업이 존재할 수 없으며 발전된 사회주의 농업이 없이는 강력한 사회주의적 현대 공업도 존재할 수 없다. 공업 자체의 발전은 원료와 식량의 공급자, 공업 생산품의 수요자로서의 농업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 발전된 농업이 없이는 원료와 식량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공업 생산품에 대한 농업 자체의

수요가 증대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공업의 발전에 따르는 생산 수단(뜨락또르, 자동차, 농기구, 화학 비료 등등)과 생활 필수품의 대량적 공급은 농업을 전진시키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전제 조건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과 농업은 서로 지원하고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개의 물질 생산 부문의 발전이 서로 밀접히 결부됨으로써만 사회주의 경제의 전면적 앙양이 보장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조건이 조성될 수 있다.

우리 당은 자기 경제 정책 수립에서 시종일관 공업과 농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전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기본 로선이 바로 그의 구체적 체현인 것이다.

이것이 근로자들 속에서 널리 불리우고 있는 쌍마 전진, 쌍두 천리마이다.

그러므로 쌍마 전진을 위한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의 강화는 오직 경제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기본 로선이 계속 철저하게 관철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지난 시기 우리 당이 중공업의 복구 발전에 그처럼 중요한 력량을 기울여 온 것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튼튼한 중공업 기지를 조성하여 농촌 경리를 포함한 전체 인민 경제를 기술적으로 재장비함으로써 경공업 및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전체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오늘 농업에 대한 공업의 전면적인 생산-기술적 방조의 강화는 변천된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을 견지하는 것으로 되며 그 관철의 주요 내용으로 된다.

현 시기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에서 주되는 측면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농촌 경리에서 전면에 나섰던 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생산 관계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였다.

농업의 협동화가 완성된 결과 이 모순은 성과적으로 해결되였다.

오늘 우리 농촌 경리에서 전면에 나선 것은 공업과 농업 간의 기술 수준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은 현대적인 최신 기술에 토대하여 급격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는데 농업은 아직 락후한 수공업적 기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산의 발전 템포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동안 지속된다면 농업은 공업을 따라 가지 못하게 될것이며 전체 인민 경제는 발전에서 장애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농촌에서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 자체도 새로운 기술에 확고히 발을 붙이기 전에는 완전히 공고화되였다고 말할 수 없다.

《기계화를 함으로써만 우리의 농업 협동 조합들이 진정으로 견고한 사회주의적 경리로 될 수 있으며 생산이 훨씬 올라 가고 농민들의 생활이 더욱 부유해질 수 있다》(김 일성,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현 시기 공업과 농업 간의

기술 수준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공업에 농업을 따라 세우며 인민 경제를 전반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키고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하기 위한 중심 문제로 나서고 있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가 농촌 경리의 기계화의 촉진을 완충기의 중심 과업 해결의 첫째 가는 고리로 규정하고 전 당, 전체 공업이 동원되여 농업을 지원하라고 호소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농업을 새로운 기술적 토대 우에 올려 세우기 위하여 공업으로부터의 전면적인 지원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호소의 실천은 《…우리 나라 기술 혁명을 전반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초》(우와 같은 문헌)에 튼튼히 의거하고 있다.

우리의 공업은 전후 6년 간에 8.6배라는 실로 놀라운 템포로 장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구조상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1953년에 비하여 1959년에 생산 수단 생산은 12.7배, 소비재 생산은 6배로 장성하였으며 공업 총생산액에서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의 비중은 지난 해에 20.6%에 달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이미 공업 뿐만 아니라 농업도 포함한 전체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훌륭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립적인 구조를 가진 중공업이 창설되였다는 명백한 표시로 된다.

종래에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주로 부속품 생산과 소규모적 로동 도구들을 생산하였고 농업에 축력 제초기, 탈곡기 등 중 소 농기계, 농기구들을 생산 공급하는 수준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사정이 다르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와 같은 현대적 기계를 비롯한 각종 선진적인 농기계들을 대량 생산하여 농업의 전면적인 기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전후 시기 우리의 공업은 배치상에서도 크게 변화되였다.

농업 발전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있는 공업 기업소들이 농촌에 일층 접근되였으며 모든 공업 기업소들이 전체 인민 경제의 생산적 요구에 적응하게 개편되여 왔다. 특히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 지방 공업 체계의 확립과 대공업과 중 소 공업의 병진 등 이 모든 우리 당의 현명한 정책에 의하여 중앙적인 대규모 공업과 함께 지방적인 중 소 공업이 급속히 확대 강화되였으며 어느 도, 어느 시, 군을 물론하고 도처에 중 소 기계 제작 공장들이 창설되였다. 이리하여 오늘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농기계 생산 및 수리 체계가 확립되였으며 지방의 실정에 맞는 각종의 농기계, 농기구들이 제때에 더 많이 생산 공급되게 되였다.

공업 부문에서 달성된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오늘 공업이 농업에 주는 방조의 내용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 공업이 농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주요한 것은 지난 시기 주로 근로 농민들의 생활-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적 방조로부터 이미 그 중심이 옮겨진 생산-기술적 방조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금년에 우리 공업은 뜨락또르 4,000대, 자동차 3,000대, 련결차 1만 5,000대를 비롯한 1만 대의 종합 탈곡기, 4,000대의 가마니 직조기 등 각종 동력 기계들과 11만 대의 우차와 14만 대의 중경 및 제초기 등의 축력 농기계들을 새로 공급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 농촌을 새로운 기술로 장비하기 위하여 일떠 선 우리의 로동자들은 직접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 그들의 요구를 생산에 적극 반영시킴으로써 농기계의 질을 일층 높이고 있다. 또한 그들은 지난 시기 일부 농기계 생산에서 존재하던 교조주의를 퇴치하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농기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로력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농업의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추진시킴에 있어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게 된 것은 공업의 발전과 함께 농업 부문에 조성된 새로운 유리한 조건들과 직접 관련된다.

그것은 우선 우리의 농업이 대규모적 사회주의 협동 경리로 전환되고 통합 발전됨으로써 대규모 농기계를 받아 들여 능률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터전이 닦아졌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의 농업 협동 경리가 처음부터 농기계 작업소, 관개 체계(대부분 국가 소유), 산림 등 국가적, 전 인민적 소유와 긴밀히 결합되여 있으며 그의 지도적 역할이 강한 조건하에서 생산 및 경영 활동이 전개되여 왔다는 사정은 사회주의적 대규모 공업의 방조를 성과적으로 받으면서 자기의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오늘 우리의 농촌에는 소유 관계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물질- 기술적 측면에서도 공업의 새로운 방조를 성과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다.

우리의 농촌에서는 수리화가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전기화에서 결정적인 성과가 달성되였으며 기계화에서도 일정한 토대를 조성하여 놓았다.

이미 90% 이상의 농촌에 전기가 들어 갔으며 8,000 여대의 뜨락또르(15마력 환산)와 수 많은 자동차가 농촌에서 작업하고 있다.

농촌 기술 혁명의 거점인 농기계 작업소는 기계 기술상 방조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의 조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협동적 생산을 하게 되였으며 생산 성과에 대하여 조합과 함께 책임을 지는 주인으로 되였다. 또한 종래 주로 기경에 종사하며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던 이 작업소가 오늘에 와서는 기경을 비롯하여 파종, 제초, 운반, 수확 등 그 작업 범위를 확대하여 협동 조합의 영농 작업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였다.

농촌 경리의 기술 혁명이 본격적인 수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우리 당은 농촌에 방대한 기술 력량을 파견하였다. 파견된 기술 력량은 공업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술 설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사하게 할 것이며 영농 사업을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 확고히 올려 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동시에 앞으로 수 많이 요구될 기계 기술 일'군과 농산, 축산 일'군들을 실지 작업 과정을 통하여 양성함으로써 우리 농촌에 튼튼한 기술 진지를 구축하게 할 것이다.

현 시기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에

서 생산-기술적 방조의 의의가 비상히 커졌다고 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소비적 련계, 농민들의 생활-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업의 방조의 의의가 감소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농촌에서 문화 혁명이 추진되고 농민들의 생활이 급격히 향상됨과 관련하여 로동 계급은 이 분야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방조를 농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우리 공업은 우선 날로 증대되는 농민들의 생활 필수품에 대한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경공업과 함께 이미 다수 신설 확장된 지방 공업을 급격히 발전시켜 소비품 생산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문화 혁명의 광범한 전개와 관련하여 공업은 농촌 문화 건설 기자재를 대량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촌의 기술 혁명, 문화 혁명이 강력한 사상 투쟁을 동반하는만큼 농민들에 대한 선진적 로동 계급의 사상 정치적 지도의 가일층의 강화가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로, 농업에 대한 공업의 생산-기술적 방조의 강화는 지난 날 주로 힘들고 생산성이 낮은 손 로동에 기초하고 있던 우리의 농업을 기술과 문화가 지배하는 농업으로 전환시켜 농업 생산의 전면적인 앙양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의 농업은 공업의 적극적인 방조에 의거하여 알곡 생산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채소, 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공예 작물, 과실, 잠견 등 농업 생산물을 더욱더 많이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농업은 식량, 부식물 및 원료에 대한 도시 공업과 주민들의 증대되는 수요를 더 원만히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농업 생산력이 결정적으로 제고되고 농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공업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게 되면 공업의 발전은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쌍두 천리마는 더욱 질풍처럼 내달리게 될 것이다.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는 농민들 자신의 생활을 유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시 근로자들의 생활을 가일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완충기의 중심 과업이 훌륭하게 해결되여 앞으로 6~7년 내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진군의 준비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 공업의 방조가 강화되고 농업이 현대적 기술로 장비되면 될수록 농업 로동 생산 능률은 크게 제고될 것이며 농산물의 상품화률은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 행정에서 농업 로동은 공업 로동의 변종으로 점차 전변되며 농업 생산물 가치에서 공업 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고될 것이다.

현 시기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 공업의 전면적인 방조의 강화는 로농 동맹을 가일층 공고화하는 데 있어서도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승리의 근본적 담보인 로농 동맹은 첫째로 그의 경제적 기초로 되는 생산 관계를 공고 강화하며 둘

째로 농민들의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그들을 로동 계급의 선진 사상으로 무장시킬 때 종국적으로 공고화된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가 완성됨으로써 로농 동맹은 우의적이며 호상 친선적인 두 사회주의적 계급 간의 동맹으로 전화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기초하고 있는 소유 형태에는 차이가 있다.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를 강화하며 농업을 선진적 기술의 토대 우에 올려 세우는 것은 이 차이를 극복하며 협동적 소유를 더욱더 전 인민적 소유의 수준으로 접근시키며 로동자와 농민, 도시와 농촌의 본질적 차이를 점차 소멸하는 방향으로 전진을 촉진할 것이다.

다른 한편 이미 확립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기초하여 로동 계급과 농민의 두 계급 간의 호상 리해와 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두터워졌다고 하지만 농민들의 머리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개인 리기주의적 낡은 사상 의식을 철저히 개조함이 없이는 그것은 더욱 강화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상 의식은 그들의 사회적 처지의 변화 즉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하는가에 따라서 개변된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사상 의식을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에 대한 공산주의적 교양을 강화함과 함께 농촌 기술 혁명, 특히 농업의 기계화를 추진하여 농업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의 강화는 농민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여 그들을 완전히 사회주의적 농민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로동 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을 새로운 토대 우에서 공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렇게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때 우리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새로운 앙양을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제도하에서의 인민 생활

김 기 남

인민 생활은 해당 사회 제도의 성격에 의존하고 있다.

과거의 모든 계급 사회에 있어서는 그 사회 제도의 착취적 본질로 인하여 인민 생활에 관한 문제가 제기조차 될 수 없었다. 로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데 혈안이 되고 있는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로동자들의 생활 문제가 아무러한 관심꺼리도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을 생활상 요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가 아니라 오직 잉여 가치를 낳는 산 《기계》로 간주하고 있다 자본주의하에서 로동자들의 개인적 소비는 《생산 과정의 순전히 우연적인 삽화》에 불과하며 《증기 기관이 석탄과 물을 소모하고, 차륜이 기계유를 소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칼 맑스 자본론, 1권 2분책, 271페지).

자본주의 제도는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 신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항상 래일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 넣고 있으며 수천 수백만의 로동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실업과 절망과 굶주림 속에 방임케 하고 있다.

지금에 와서 부르죠아 이데올로그들도 자본주의 제도의 불가피한 산물인 빈궁, 실업, 공황 등의 현상을 로골적으로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이러한 고질을 분식하고 자본주의 제도의 착취적 반인민적 본질을 엄폐하며 정당화하기 위하여 각종 반동적 《리론》들을 꾸며내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태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리론》으로서 말사스주의를 들 수 있다. 말사스는 자본주의하에서의 가난한 사람들을 불필요하고 《과잉》한 존재라고 하였으며 그들은 자연이 차려 놓은 연회에 참가할 아무러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연은 그들에게 퇴장을 명령한다고 떠벌렸다. 말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하에서의 무서운 빈곤과 질병과 전쟁은 이 《과잉》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좋은 수단으로 되며 근로자들에게 대하여서도 도리여 《행복》으로 된다고까지 지껄이고 있다. 이러한 식인종적인 《리론》이 특히 자본가 계급의 지지와 총애를 받고 있으며 오늘 미국과 남조선을 비롯한 자본주의 세계에서 널리 류포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근로자들은 빈궁과 실업과 무권리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 그것은 이 모든 현상이 자본주의 제도의 본질로부터 불가피하게 산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사회주의 제도만이 착취 당하고 압박 받는 근로자들 앞에 부유하고 행복한 생활의 길을 열어 준다. 근로 인민의 주권이 확립되였으며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가 지배하는 조건하에서 근로자들은 비로소 자기 운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생산의 결과는 오직 근로 인민 자신의 리익을 위하여서만 리용되며 달

리는 처리될 수 없다. 사회주의하에서 《실업》, 《파산》, 《빈곤》, 《빈민굴》, 《걸인》 등등의 말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근로하는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배려는 사회주의 국가의 모든 활동에서 최고의 원칙으로, 가장 중요한 지도적 리념으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 제도만이 인민을 행복한 생활에로 인도할 수 있다는 진리는 우리 나라의 력사적 경험에 의하여서도 실증되였다.

무슨 힘이 전후 불과 6~7년 동안에 완전히 페히였던 이 땅 우에 오늘의 약동하는 생활을 창조하여 놓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령도하에 인민이 창건하였으며 전쟁의 불'길 속에서 피로써 고수되였으며 인민의 창조적 로력으로써 계속 강화되고 발전되여 가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의 힘이다.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에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한 원쑤들은 저들이 감행한 파괴로 인하여 조선 인민이 도저히 추서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오산이였다. 그들은 사회주의 제도 속에 잠재하고 있는 위력한 힘을 볼 수 없었으며 이 제도하에서 인민들이 어떠한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가를 타산할 수 없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달성하고 있는 놀라운 성과들을 적들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자본주의 국가 인사들도 우리의 성과가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며 인민들의 생활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전쟁에서 심히 령락된 인민 생활은 전후 수년 간에 현저히 향상되였다. 인민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을 보장받고 있으며 자기의 생활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앞날을 내다 보고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의 부단하고 급속한 장성은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생산력을 온갖 낡은 구속에서 해방하였으며 그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무한한 여지를 열어 놓았다. 생산의 장성 속도—이것은 그 사회 제도의 력사적 진보성을 규정하는 종합적 지표로 된다. 지난 10년 동안에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서 공업 생산은 3배 이상 장성하였으나 전체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공업 생산은 동기간에 1.5배도 장성하지 못하였다. 전후 년간의 우리 나라 공업의 년 평균 장성 속도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최근 약 반세기 간의 그것을 무려 15배로 릉가하고 있다.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은 비단 생산의 장성 속도가 높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소비의 장성을 가져 온다는 데 있다. 모든 사회에서 소비는 생산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나 생산과 소비 간에 적대적 모순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생산의 장성은 인민의 소비 수준의 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본주의하에서의 생산의 발전은 자본의 권력을 강화할 뿐이며 근로자들에게 생활의 개선을 가져 오지 않는다.

《자본주의에 고유한 생산과 소비 간의 모순은 오직 국민적 부가 인민의 빈궁의 증대와 함께 증대하며 또 사회의 생

산력이 인민적 소비의 상응하는 증대 없이, 근로 대중의 리익을 위한 이러한 생산력의 리용 없이 증대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레닌 전집, 제 4권 1분책, 246~247페지).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로동자들이 자기들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자면 그것은 생산을 장성시키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과의 투쟁을 통하여 그들에게 착취 당한 잉여 가치의 일부를 빼앗아내는 방법으로서만 실현될 수 있다.

자본주의에 고유한 생산과 소비 간의 적대적 모순은 사회주의하에서 완전히 청산되였다. 여기서 생산의 목적은 리윤의 추구가 아니라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는만큼 생산의 장성은 직접적으로 소비의 장성을 가져 온다.

인민들의 개인 소비품은 경공업과 농업에 의하여 생산된다. 그렇다고 하여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경공업과 농업이 우선적으로 발전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경공업과 농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공업의 튼튼한 토대가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 나라에 강력한 중공업 기지가 없다면 농업의 수리화도, 전기화도, 기계화도 생각할 수 없으며 반년 간에 1,000 여개의 지방 산업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

주민들의 옷감을 생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정은 동일하다.

일제 통치 시기에 공화국 북반부에는 섬유 공업의 토대가 없었다. 1944년에 인구 1인당 직물 생산량은 0.14 메터에 불과하였다. 전쟁 기간에 이 방직 공업마저 적들에 의하여 파괴되였다. 게다가 우리 나라에는 자연 섬유 원료가 부족하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직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서는 인조 화학 섬유 생산을 대대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만약 전후의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우리 당이 중공업 발전에 일차적 관심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만약 우리가 발전된 기계 제작 공업, 화학 공업, 전기 공업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 비날론 공장과 신의주 방직 꼼비나트의 건설도 청진 방적 공장의 확대 공사도 론의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 로선의 현명성과 정당성은 더욱 뚜렷이 실증되고 있다.

근로자들은 생산의 장성이 그들 자신의 생활 향상을 가져 오고 있다는 것을 확고히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생산의 발전과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에 대하여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 운동으로 불리우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산적 앙양과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을 위한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은 그의 구체적 표현으로 된다.

로동에 의한 분배는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을 보장하는 현실적 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사람들의 물질적 처지와 사회적 위치를 규정하는 것은 자본도 아니며, 출신도 아니며 오직 그 자신의 창조적 로동 뿐이다. 로동은 진정으로 매 개인의 행복의 원천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물의 분배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 법칙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이 법칙은 매개 근로자들이 성별, 년령에는 관계 없이 그가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동일한 로동에 대하여 동일한 지불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아직 생산물의 풍족을 기할만큼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낡은 분업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로동에 대한 낡은 관념이 청산되지 못한 조건하에서 로동에 의한 분배만이 유일하게 정당하며 합리적인 보수 제도로 되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된다. 우리 당은 이 사회주의적 분배 법칙의 제 요구에 엄밀히 립각하여 근로자들의 수입의 크기를 규정하며 그 등차를 조절하고 있다.

전후 년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4차에 걸쳐 로동자, 사무원의 로임이 대폭 인상 조절되였다. 이 과정에서 로임 조직이 일층 합리적으로 개선되였으며 특히 낮은 임금을 받은 로동자, 사무원의 임금이 보다 많은 비률로 인상되였다. 1959년에 로동자, 사무원의 화페 임금은 1956년에 비하여 221%로 장성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는 로동 조건의 개선과 로동 보호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거대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특히 지하 로동, 유해 로동, 중로동 부문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현대적인 로동 보호 시설을 갖추어 놓았으며 막대한 금액에 달하는 로동 보호 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자본주의하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다. 로동 보호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시끄러운 부담이며 한개의 《사치》이다. 자본주의적 《문명》의 으뜸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매 3분마다 1명의 로동자가 자본의 희생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잘 증명하여 주고 있다.

우리 제도하에서 녀성 로력과 아동 로력에 대한 혹사와 차별적 지불 제도는 청산되였다. 아동 로동은 금지되였으며 녀성들은 필요한 모든 로동 보호와 남성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

북반부의 모든 근로자들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 일하며 그가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보수를 받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남반부 로동자들은 이와 정 반대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들은 대량적인 실업과 가혹한 착취와 중세기적 로동 조건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 푼 안 되는 기아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청부업자, 십장, 반동적인 《로조》 간부들에 의하여 그들의 로임의 적지 않은 부분이 중간 착취 당하고 있으며 로임 체불은 만성적 현상으로 되고 있다. 수 많은 로동자들이 임금 대신에 임금 전표를 받고 있으며 생활난으로 하여 부득이 이 전표를 2~3할씩 깎아 팔고 있으며 지어는 절반 값으로 팔고 있다. 오늘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로동자들의 수입도 그들의 생계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당은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며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정전 직후에 전쟁으로 인하여 그 수효가 현저히 증가된 빈농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농촌 경리 분야에서 가장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장성시키며 개인농 경리를

사회주의적 집단 경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협동화 사업에서 력사적 승리가 달성되였으며 기술 혁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당은 전후 년간에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현물세 률을 현저히 인하하였으며 고정 현물세제를 실시하였으며 국가 미납곡 및 국가 대여금과 그 리자를 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농산물 수매 가격은 농민들의 수입에서 중요한 항목을 이루고 있다. 당과 정부에서는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방대한 규모로 계속 장성시키고 있는 한편 전후 시기에 농산물 수매 가격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비료 교역 비률을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였다.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우리 당의 거듭되는 조치로 말미암아 빈농민 문제는 해결되였으며 농민들의 수입은 현저히 증가되였다. 농업 협동 조합 1호당 분배량은 다음과 같이 장성하였다.

	단 위	1955년	1956년	1957년	1958년
알 곡	kg	1,250	1,616	1,742	1,826
저 류	〃	193	357	434	501
현 금	원(새화폐)	56.05	95.42	137.03	203.50

당면하여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근거하여 농촌 경리 발전에서 획기적 전환을 일으키며 농민들의 생활을 가일층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작업반 독립 채산제 및 작업반 상금제의 도입, 농기계 작업소 일'군들의 보수 제도의 개편, 수매 체계의 개선과 일부 축산물에 대한 수매 가격의 인상, 산간 지대 농업 협동 조합 등에 대한 농업 현물세의 폐지 등은 농촌에서 거대한 로력적 앙양을 불러일으켰으며 농업 생산 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수입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물가 수준이 고려되여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하에서 물가는 등귀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 때문에 설혹 근로자들이 부분적인 임금 인상을 달성한다 하여도 그것은 물가 등귀와 기타의 원인들로 인하여 사실상 그들의 생활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실질 임금의 저하의 경향성은 자본주의하에서 합법칙적 현상으로 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하에서는 화폐 임금이 부단히 장성하는 동시에 실질 임금이 이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장성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에 기초하여 대중 소비품의 가격이 계속 인하되며 국가의 사회 문화 시책비가 계속 장성하는 데 기인된다.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7차에 걸쳐 물가 인하가 실시되였다. 이 결과에 국정 소매 물가의 지수는(배급품 제외) 1953년에 비하여 1959년에 45%로 저하되였다.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 생활 안정 대책과 사회 문화 시책은 근로자들의 실질 수입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있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에 대한 끊임 없는 배려는 우리 당 활동의 최고 원칙이다. 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관심의 중심으로 되여 왔으며 또 되고 있다》(김 일성 선집, 제 4권, 505페지).

3년 간의 가혹한 전쟁과 전후 페허로부터 새 생활을 창조하는 어려운 투쟁속에서도 국가는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에 대하여 계속 막대한 배려를 돌려 왔다. 당과 정부는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에 대한 수매 가격을 대폭 인상하여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도시 주민들에 대하여 무료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공급량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국가는 매해 수천만원(구화폐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식량 격차금과 량곡 배급 보장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 도탄 속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근로자들의 생활과 매우 대조적이다. 만약 식구 5명으로 되는 남조선 로동자 가정에서 북반부 로동자가 국가에서 공급 받고 있는 분량의 식량을 시장에서 구입하자면 개략적인 계산에 의하여도 비교적 안착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로동자들의 임금의 80% 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남조선 로동자들이 로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양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과거에 식량이 부족하였던 북조선에서 근로자들이 식량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때 과거에 곡창으로 알려진 남조선에서 그처럼 혹심한 만성적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이것이 사회 제도의 근본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공화국 북반부에서 주택 건설은 미증유의 속도와 규모로 전개되고 있다.

엥겔스가 《주택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은 로동자들의 기타의 수요가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가를 말해 주는 척도로 될 수 있다》(맑스, 엥겔스 전집, 제 2권, 로문 판, 302페지)라고 지적할 정도로 주택 문제는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쟁에 의한 파괴로 말미암아 첨예하게 제기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후 시기에 당은 주택 건설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하여 왔다. 건재 공업이 대대적으로 발전되였으며 건설에서 공업화가 광범히 도입되였다. 오늘 주택과 공공 건물에 대한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우리의 근로자들은 토굴집의 신세를 면하게 되였으며 현대적으로 설비된 문화 주택에 살고 있다.

당은 주택 건설의 규모와 함께 그의 질과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우리의 주택은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건설자들이 사용한다. 때문에 그것은 《보기 좋고, 쓸모 있고, 아담하고, 튼튼한 사회주의 건축물》이여야 하며 《근로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조선 사람의 풍속과 감정에 알맞게》 건설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은 극히 렴가한 건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주택 건설비와 유지비에 비하여 근로자들이 매월 지불하고 있는 사용료는 0.6%를 이루고 있다.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계비에서 거주비의 비중은 약 3%에 불과하며 그것은 계속 저하되고 있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주택 문제는 계속 첨예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많은 부분이 빈민굴의 신세

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집세는 자본주의 국가 근로자들의 가장 무거운 부담의 하나로 되고 있는바 그것은 그들의 임금의 약 4분의 1내지 3분의 1을 점하고 있다. 남조선에서의 주택 사정은 더욱 우심하다. 로동자들의 대부분은 도심지에서 떨어진 《빈촌》에서 오막살이를 차지하거나 로숙하고 있으며 특히 수백만의 실업 군중들은 류리 걸식하며 토굴, 지하 도로, 혹은 길'바닥에서 밤을 새우고 있다. 모든 사실은 자본주의가 근로자들에게 주택 문제를 결코 해결하여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교육, 보건, 사회 보험 및 사회 보장 등 사회 문화 시책에 대한 공화국 정부의 지출은 계속 거대한 규모로 장성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배움에 굶주리던 근로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며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그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등 인민들의 절실한 념원의 실현이 전 국가적 사업으로 조직 전개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적 교육 제도가 확립되였다. 자본주의하에서 마치 길'가의 《잡초와 같이 아무러한 감시도 없이》 자라나고 있던 근로자들의 자제들은 사회주의하에서 국가의 전적인 부담과 배려 속에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다.

전쟁의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우리 나라에서 후대들의 교육 교양 사업은 한시도 중단되지 않았다.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으로 복구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학교 건물이였다. 그리하여 이미 1956년에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가, 그리고 1958년에는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가 각각 실시되였다. 작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수업료가 폐지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는 일제 통치하에서 한 개도 없었던 대학이 오늘 37개나 창설되였으며 여기서 로동자, 농민들의 자녀들이 국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다.

공화국 제도하에서는 비단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 직장에서도 일하면서 자기의 열성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록 창성이라든지 백두산 포대리와 같은 두메 산'골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얼마든지 공부해서 대학 수준에 올라 갈 수 있다.

총 인구수에 대한 학생수의 비례에서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선진적 나라들의 대렬에 들고 있다.

인구의 4분의 1을 공부시킨다는 것은 커다란 국가적 부담을 전제로 한다. 만약 자기의 자녀 2명을 대학에 보내고 있다면 그 가정은 국가로부터 1년에 약 876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된다(여기에는 매년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양복, 외투의 국가 부담액은 포함되여 있지 않다). 당과 정부는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싸우다가 희생된 애국 렬사들의 유자녀들과 전재 고아들을 친부모의 정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다. 남조선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처지가 어떠한가는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과 정부는 미래의 공산주의 건설자들의 교육 교양 사업에 지출하는 자금을 결코 아끼지 않고 있으며 계속 그 액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것은 학원이 한 개 모리장으로 화한 남조선의 현실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오늘 수십만의 학령 아동들이 배움의 길을 잃고 길'가에서 헤매고 있으며 비교적 교육 시설이 구비되였다고 하는 서울에서조차 《국민 학교》에서 4부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다. 과중한 각종 납부금은 남반부 청소년들의 배움의 길을 더욱 가로 막고 있다.

인민 보건 사업에 있어서도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은 론의할 여지가 없다. 자본주의하에서 의료 사업은 가장 수익성이 많은 기업으로 되여 있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한 시각을 자본주의는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또 하나의 가장 좋은 기회로 리용하고 있다.

병마로부터 인명을 구원하며 근로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주의 보건 사업은 인도주의적인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에서 흘러 나온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 보건 사업은 국가적 사업으로 되였다. 근로자들은 국가 부담에 의하여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쟁 기간에 우리의 진료소, 병원 및 기타의 보건 시설들이 거의 다 파괴되였다. 그러나 전후 단시일 내에 그것은 완전히 복구되였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규모로 확장되였다. 1953년에 비하여 작년에 병원수는 125%로, 외래 치료 기관수는 372%로, 의사수는 360%로 증가하였다.

오늘 주민들의 리병률은 현저히 저하되였으며 과거부터 내려 온 악성 전염병들은 기본적으로 퇴치되였다. 인민 보건의 중요한 지표로 되는 인구의 자연 증가률과 인민의 평균 수명도 현저히 장성하였다. 인구 1,000명당 출생자 수는 1944년의 31.3명으로부터 1959년에 39.3명으로 장성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동기간에 20.8명으로부터 12명으로 축소되였다. 조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일제 시기에 비하여 15년 이상 연장되였다.

국가는 녀성들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며 아동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에 거액의 자금을 지불하고 있다. 1953년부터 1959년에 이르는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 탁아소 수는 53배, 유치원 수는 179배로 증가하였다.

사회 보험 및 사회 보장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출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 로동자, 사무원들은 임금을 계속 받으면서 휴양소와 료양소들에서 무료로 휴식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1959년에 국가 혜택에 의하여 약 33만 명의 근로자들이 정, 휴양 생활을 하였다. 1명의 로동자가 12일 간의 1기 휴양소 생활에서 국가로부터 40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해 국가가 얼마나 많은 지출을 부담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사회 보장 대상자들에 대한 국가적 배려도 매우 크다. 국가는 양로원, 양생원, 보양소 등을 설치하고 년로자들의 생활을 돌보며 무의무탁한 영예 군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국가는 애국 투사들을 방조하며 전쟁에서 희생된 애국 렬사들의 가족과 자녀들에 대하여 커다란 배려를 돌리고 있다.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적 시책은 이 밖에도 허다하다. 그러나 이상의 기본적인 몇 가지 자료에 의하더라도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은 그들

이 받는 임금액만으로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인민 생활 안정 대책과 사회 문화 시책에 의하여 지출되는 방대한 자금을 가산하여야 한다. 초보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작년에 이러한 형태로 우리의 로동자, 사무원들이 추가적으로 얻은 수입은 자기의 기본 임금의 약 70%를 이루었다.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며 물가를 인하하는 한편 사회 문화 시책에 더욱 많은 자금을 돌림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 수입을 계속 높이고 있다.

* *

우리 당은 인민 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할 것을 금년도 완충기의 중심적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당은 이것이 목전 우리 혁명 승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의 하나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그것을 첫째 가는 혁명 과업으로 간주하고 그 수행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왜 오늘에 와서 절박한 혁명적 과업으로 제기하게 되였는가? 우리 인민은 김 일성 동지와 우리 당의 영명한 지도하에 전후의 가장 어려운 고비를 빛나게 이겨냈다. 인민들은 전시의 그 영웅성을 그대로 견지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장래 경제 발전의 기초를 다져놓았다. 인민들은 의식주 문제에서 가장 절실한 요구를 이미 해결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어제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으며 더욱 다양하고 더욱 문화적이고 더욱 유족한 생활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구매 능력은 급격히 제고되였다.

특히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더욱 박두한 현실적 전망으로 제기됨과 관련하여 이 문제는 첨예한 혁명적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한편 우리 나라에는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를 충족시켜 주며 그들의 생활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물질적, 생산적 토대가 조성되여 있다.

때문에 당은 인민 생활 향상에 대한 문제가 현 단계에서 지체없이 해결되여야 할 성숙된 문제인 동시에 또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 생활 향상이 합법칙적인 현상이라 하여 그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제도에 내재하는 모든 우월성과 가능성을 현실적인 것으로 전화시키기 위하여서는 거대한 경제 조직자적 사업이 요구된다. 국가의 강력한 경제적 토대도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도 그것을 집행하는 우리의 경제 지도 일'군들이 우리 당의 군중 관점으로 확고히 무장되여 있지 않으며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당의 지시에 충실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활력을 발휘할 수 없다. 당은 일부 일'군들이 생산 성과를 올린다는 구실 밑에 로동자들의 생활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는 현상들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1.4분기 계획 수행 행정에서 뚜렷이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지도 일'군들이 후방 사업에 일차적 관심을 돌리는 기업소들에서는 생산 실적과 로동 생산 능률이 현저히 오르고 있다. 당은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그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건 간에 오직 한 가지 사상—어떻게 하면 인민들을 더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일념으로 생각하며 맡은바 사업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일 빨찌산들의 군중에 대한 사상 관점, 그들의 인민적 사업 작풍, 그 고결한 성품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본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오직 인민에게 바친 항일 빨찌산들의 빛나는 혁명 전통은 오늘 우리 당의 모든 정책에서 구현되고 있다. 우리 당 정책의 그 어느 하나도 인민을 위하지 않는 것은 없다. 최근 시기 우리 당 중앙이 인민 생활을 가일층 향상시킬 목적으로 특히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 및 상품 류통 사업의 개선을 위한 결정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은 그의 또 하나의 구체적 표현이다.

전체 조선 인민들은 오직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와 우리 당 중앙 위원회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되며 새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협동화와 기술, 문화 혁명

홍 달 선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이미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였으며 기술적 개조와 문화 혁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고 있다.

현 시기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서고 있는 당면 과업은 선진적 생산 관계에 의거하여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는 데 있다.

《농촌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생산 관계를 개조할 뿐만 아니라 또한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실현하여야 하며 농민들의 의식을 개조하여야 한다》(김 일성,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농업 협동화의 승리와 농촌 경리의 금후 발전에 대하여》).

1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 운동은 정전 직후에 시작되여 1958년 8월에 완성되였다.

농업 협동화의 완성은 우리 농촌을 착취와 빈궁의 근원이 영원히 청산된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켰으며 농촌의 소소유자들을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변시켰다.

이에 따라 낡은 생산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농업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전되였으며 농민들의 혁명적 기세는 더욱 앙양되였다.

협동화가 완성됨으로써 농업은 사회주의 공업과 함께 계획적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였으며 로농 동맹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토대 우에서 더욱 강화되였다.

농업 협동화의 완성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을 촉진시켰다.

이 모든 승리는 우리 당이 레닌의 협동화 리론을 우리 나라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농업 협동화에 관한 정확한 로선을 제시하고 모든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면서 그의 관철을 위하여 동요 없이 투쟁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또한 이 승리는 농민 대중 속에서 우리 당의 위신이 높고 그들이 실지 투쟁을 통하여 당 정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한결같이 궐기하여 투쟁하였기 때문에 달성되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 운동을 개시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미 전쟁전 시기에 사회주의 공업과 개인 농민 경리 간에는 일정한 정도의 모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은 농업 협동화 문제를 정전 직후의

가장 어려운 조건하에서 비로소 제기하였다.

정전 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가 바로 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일제로부터 극도로 기형적이고 파괴된 공업을 물려 받았다. 우리는 전전에 인재와 원료, 자재 및 자금이 심각하게 부족한 조건하에서 락후한 기술에 토대하여 공업을 복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후에는 이와 사정이 달랐다. 전쟁 기간에 공업은 피해가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제작 공업이 부단히 장성하였고 공업에서 사회주의 성분의 비중은 계속 제고되였다. 그리하여 전후에는 현대적 최신 기술에 기초하여 전시에 단련 육성된 인재들과 형제 나라들로부터의 국제적 원조를 효과 있게 리용하면서 전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공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킬 수 있었다.

농업에서도 일련의 변화가 일어났다.

전전에 농촌 경리 분야에서 소농 경리의 존재는 불가피하였다. 그것은 일정하게 농업 생산을 앙양시켰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농민 생활을 개선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전후에는 전쟁의 피해로 말미암아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혹심하게 파괴되여 소농 경리는 단순 재생산도 보장하기 곤난한 처지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식량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으며 빈농민의 비률은 40%에 달하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적 공업과 개인 농민 경리 간의 모순은 전후 우리 나라 형편에서 급속히 복구 발전되며 질적으로 변화되는 공업과 극히 완만하게 복구되는 농촌 경리 간의 심한 불균형으로서 나타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우와 같은 문헌).

한편 개인 농민 경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령락된 농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개선 안정시킬 수 없었을 것이였으며 나아가서 농민 생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었을 것이였다. 협동화의 길만이 있을 뿐이였다.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인민 민주주의 주권이 나라의 기본 생산 수단을 장악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공업의 지도적 역할이 보장되여 있으며; 민주 개혁이 철저히 수행되였고 특히 전쟁 기간에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성분이 부단히 강화되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약화되였으며; 전쟁의 시련을 통하여 로농 동맹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사회주의 농업의 시범적 역할과 비중이 강화되였으며; 농민들 사이에서 협동적 로동 조직 형태가 보급되고 발전되였던 제반 사실은 농업의 협동화를 위한 전제 조건들이 성숙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징표들이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 중앙 위원회 6차 전원 회의는 정전 직후에 농업 협동화 문제를 일정에 제기하였던 것이다.

우리 당에 의한 레닌의 협동화 리론의 제 원칙의 창조적 적용은 협동화 운동을 조직 지도하는 전 행정을 관통하였다.

레닌의 협동화 리론 중에서 자원성은 가장 중요한 조직 원칙이다.

그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집단 경리에로 자원적으로 이행하도록 준비시키며 또 그 이행을 보장하는 제 방책의 실시를 예견하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 농민들 속에 협동 경리를 조직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우리 나라에서 토지가 사'적 소유로 되여 있는 실정에서 시범에 의한 설복은 자원성 원칙의 관철을 위하여 더욱 중요한 필수적 전제로 되였다.

당은 협동화 운동의 경험적 단계를 설정하여 새 제도의 우월성, 그의 경제적 유리성을 광범한 농민들 특히 중농민들에게 실물로 보여 주었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자원성의 원칙에 튼튼히 립각하였다. 각이한 계층과 준비 정도가 다른 농민들이 모두 접수할 수 있도록 생산 수단의 통합 정도와 분배 방식을 달리하는 세 가지 형태를 규정하였으며 산간, 해안 지대 농민들도 자원하여 나설 수 있도록 반 농 반 목축업 조합과 반 농 반 어업 조합도 조직케 하였다.

또한 어느 형태를 막론하고 생산 수단에 대한 통합 여부와 그 방법은 농민들의 개별적 실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역축 및 농기구 등 생산 수단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회를 선정하여 공정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도록 하였다.

협동화의 완성 단계에 들어 서면서 운동이 비교적 락후하였던 산간 지대, 도시 주변, 신 해방 지구들에서 자원성의 원칙은 개별적 실정에 적합하게 더욱 신축성 있게 적용되였으며 비교적 부유한 농민들도 자원하여 농업 협동 조합에 참가할 수 있게 하였다.

레닌의 협동화 리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의 다른 하나는 협동 조합의 량적 장성에 질적 공고화를 병행시키면서 운동을 점차적으로 견실하게 발전시키는 지도 원칙이다.

이 원칙을 구현함에 있어서 당은 우선 운동의 계급적 토대를 확고한 기초에 두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며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부농을 제한 개조하는 계급 정책을 실시하였다.

빈농민들과 신중농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협동화를 지지하여 나섰다. 동요하는 중농에 대하여서는 꾸준한 해설 설복과 실물 교양을 통하여 조합에 인입하였다.

부농층에 대해서는 그들의 착취 경향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진실하게 일하려는 자들은 조합에 가입시켜 사회주의 근로자로 개조하였다. 그러나 협동화를 방해하는 극소수 분자들에 대해서는 응당한 제재를 가하였다.

당은 협동화 운동의 대중적 발전 단계에서 행정적 방법으로 협동화 운동을 촉진하려는 경향을 엄격히 경계하였으며 또한 협동 조합을 량적으로만 장성시키려 하며 무리하게 높은 형태와 큰 규모의 조합만을 조직하려는 조급성을 모두 제때에 시정하였다.

이와 반면에 협동화 운동의 《시기 상조론》이라든가 운동의 급속한 발전에 당황하여 뒤'걸음질하는 보수주의에 대하여서도 제때에 타격을 가하였다.

협동화 운동이 대중적 발전 단계에 들어 서면서부터 당은 매년 1~2회씩 실시한 중앙적인 집중 지도 사업을 통하여 협동화 운동에 대한 지도 중심을 명확히 규정하고 력량을 집중하는 방침을 관철시켰다.

농업 협동화 운동을 추진시킴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협동 조합에 국가적 지원을 줄 데 대한 레닌적 원칙이다.

협동화 운동의 초기에는 물론 대중적 발전 단계에 들어 선 1955~1956년에 걸쳐 당은 농촌 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를 위하여 국가 투자를 증가시켰으며 화학 비료, 농기계, 건재 및 각종 소비품들을 대량으로 공급하였으며 농촌 기술 인재의 양성 사업을 확장하고 로력자를 파견 고착시키는 한편 중요 영농 시기마다 수백만 공수의 협조 로력을 보냈다.

이와 함께 식량, 종곡, 자금을 대여하였고 막대한 량의 현물세 납부와 대여곡 및 대부금 반환을 감면하였으며 현물세를 감하하고 수매 가격을 인상하였다.

국가는 있는 힘을 다하여 농업 협동 조합에 방조를 주었으며 계속 주고 있다. 국가적 지원은 협동화 운동을 견실한 토대 우에서 급속히 발전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 운동은 현대적 대농기계가 거의 없이 시작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경리 형태의 개조가 기술 개조에 선행하여 완성되였으며, 농민의 사'적 토지 소유에 기초한 조건하에서도 처음부터 제 3형태의 조합이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우리 농촌 내부의 생산력, 생산 관계 및 계급 력량 관계 등에서 조성되고 있던 제 사정들과 관련되여 있다.

우리의 농업 생산력은 그의 사회화 정도가 매우 높았다.

그것은 우리 농업 생산에서 착취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로동이 거의 전일적으로 지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 로동이 광범히 존재하였으며; 해방 후 수리화가 계속 실시되여 관개망이 급격히 확장되였으며; 그 수는 적었으나 국가 소유의 현대적 대농기계를 통하여 국가 쎅또르 및 개인농들 사이의 련계와 의존성이 현저히 강화되고 있었다는 등으로 설명된다.

협동적 공동 경리는 극히 분산되였던 개인농 경리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경리의 개선을 달성함으로써 수공업적 기술 토대 우에서도 능히 자기의 우월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농업 협동화 운동을 급속하게 발전시킴에 있어서 생산 관계의 측면에서의 유리한 조건들은 토지 개혁의 철저한 실시에 의하여 근로 농민적 토지 소유 관계가 확립되였으며 농민들의 토지 소유가 령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균등하였다는 데 있었다.

근로 농민적 토지 소유는 토지가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하였으며 《경작권지》 제도의 존재는 농민들의 토지 리용의 균등성을 보장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토지의 사'적 소유는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사유 관념을 매우 희박하게 하였다.

토지 소유의 령세성은 농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없게 하였는바 이것은 바로 협동화 운동의 템포를 빠르게 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토지 소유의 균등성은 토지에 대한 분배를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하였으며 이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로력에 의해서만 분배를 실시하는 제 3형태의 조합을 자원하여 택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끝으로 농촌에서 계급적 력량 관계가 협동화에 결정적으로 유리하였다.

우리 농촌에서 농업 협동화를 반대할 수 있는 부농의 세력은 전쟁 기간에 더

욱 약화되여 정전 직후에 전체 농호의 0.6%에 불과하였으며 실제로는 그들의 대다수도 협동화 운동에 인입되였다.

이와 반면에 우리 농민들은 3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진 혁명 전통에 의하여 교양되였으며 해방 후 민주 개혁의 실시를 통하여 단련되였으며 전쟁의 간고한 시련을 통하여 정치적 각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들은 당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혁명 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당의 농업 협동화 정책에 한결같이 호응하였다. 특히 전시의 어려운 조건하에서 그들은 공동 로력 조직 형태를 발전시켜 협동화의 예비적 조건을 성숙시켜 왔었다.

이 모든 조건들은 이미 본 바와 같이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농업 협동화 운동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농업의 협동화가 완성된 후 생산 관계 발전의 측면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진 것은 1958년 10~11월에 진행된 농업 협동 조합들의 전반적 통합 사업이였다.

이 결과에 첫째로 리 행정 구역을 단위로 하여 리내에 있는 농업 협동 조합들이 한 개의 조합으로 통합됨으로써 그 규모가 현저히 확대되였다. 이는 종래의 조건하에서는 적합하였던 비교적 작은 경리 규모가 농업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에 적응할 수 없게 된 모순을 해결한 것이였다.

통합 사업은 매우 복잡한 사업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한결같은 찬동하에 1~2개월 내에 순조롭게 완수되였다.

둘째로 농업 협동 조합들의 통합은 종래 리 단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사업의 번잡성을 동반하던 농촌 소비 조합 상점과 신용 협동 조합 사업을 농업 협동 조합에 포괄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농업 협동 조합들이 리내에서 생산으로부터 분배, 교환 및 소비에 이르는 모든 경제 활동을 유일 계획에 의하여 조직 진행하게 되였으며 통합된 농업 협동 조합의 관리 위원회는 리적 범위에서 협동 경리에 대한 경제 조직자적 활동을 수행하게 되였다.

세째로 통합과 관련하여 농업 협동 조합들은 리내의 교육 문화 보건 및 후생 사업 등 부문들도 모두 포괄 운영하게 되였다.

이것은 락후하였던 우리 농민들의 문화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며 각급 교육망을 시급히 확장하고 생산과 교육을 직접 결합시키며 주민들의 사회적 및 개인적 수요를 공동으로 충족시키는 국면을 확대하였다.

이리하여 통합된 농업 협동 조합은 리적 범위에서 협동 경리에 대한 문화 교양자적 활동도 수행하게 되였다.

네째로 통합된 농업 협동 조합들이 협동 경리에 대한 경제 조직자적 및 문화 교양자적 활동을 수행하게 됨과 관련하여 리적 범위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던 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이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였다.

통합 사업을 통하여 농업 협동 조합적 소유는 전 인민적 소유에 접근하는 방향에로 거보의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것은 제 3형태의 조합의 성격을 훨씬 벗어난 것이다.

전국 농업 협동 조합 대회(1959년 1월)는 협동화 운동 과정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들과 성과들을 고착 발전시키고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과업을 적극 추진시키며 조합을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공고 발전시킬 데 대한 과업들을 규정한 새 기준 규약(잠정)을 채택하였다.

새 기준 규약에서 농업 협동 조합들의 통합의 성과는 발전의 지향과 함께 법적으로 고착되였다.

새 기준 규약에 의하여 다른 일체 생산 수단은 물론 토지까지도 공동 소유로 된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것은 우리 나라 토지 제도 력사에서 실로 획기적 사변일 뿐만 아니라 근로 농민적 토지 소유로부터 사회주의적 토지 소유에로 이행하는 방도에 대한 새로운 경험으로도 되는 것이였다.

농업 협동 조합적 소유는 량적 장성뿐만 아니라 린근 조합들과의 공동 소유를 형성함으로써 그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협동적 소유는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지향에 충만되여 있다.

2

우리 농촌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서는 농촌 경리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를 기술적으로 개조함으로써만 사회주의 사회의 높은 생산력을 달성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를 가일층 공고화할 수 있다.

우리 당은 농촌 기술 혁명 과업을 제기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경지 면적이 제한되여 있고 논'벼의 비중이 크며 해마다 가물과 장마가 빈번한 조건을 옳게 타산하여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는 결정적 고리인 수리화를 그의 기본으로 규정하였다.

해방 후 우리 당의 방침에 의하여 수리화가 계속 추진되여 왔으며 협동화 운동의 대중적 발전 단계에 들어 서면서 전면적으로 전개되였다. 그리하여 협동화의 완성과 거의 동시에 논 관개가 기본적으로 완성된 조건하에서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9월 전원 회의는 수리화의 중심을 발 관개 체계 확립에 돌렸다.

당은 대규모 관개 공사는 종전과 같이 국가 투자에 의하여 적극 추진시키면서 중소 규모의 관개 공사는 농업 협동 조합 자체 력량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진행케 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9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하여 전 당이, 전체 인민이 동원된 결과 불과 6개월 동안에 37만 7,000정보의 관개 면적이 새로 확장되였다. 이리하여 관개 총 면적이 80만 정보에 달하여 수리화의 력사적 위업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였다.

경사지가 많은 우리 나라에서의 수리화는 적지 않게 전기 동력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양수 시설에 의거하였다. 또한 수리화는 다른 한편 저수지의 물을 리용하는 중소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수리화는 농촌에 전기의 도입을 촉진하였으며 또 그곳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였다.

국가 투자에 의하여 계속 추진되여 온 대규모 수력 발전소 및 도시 주변의 화력 발전소의 건설과 병행하여 각지에서 수력, 화력, 풍력 및 조수력 등 온갖 발전 원천을 리용하는 중소 발전소들의 건설이 주로 지방 자체의 력량으로 대대적으로 전개되였다. 그리하여 전기화에서 결정적 전진이 이룩되였는

바 1959년 말까지에 우리 나라 전체 리의 90%에 전기가 들어 가게 되였다.

우리의 수리화는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시키는 데 유리한 물질-기술적 조건들을 조성하였다.

수리화의 기본적인 완성으로 조성된 영농의 유리한 조건들 자체가 바로 기계화를 요구하였으며 또 기계화를 실현함에 유리한 경지 조건들을 지어 주었다.

또한 기계화는 전기화에 의하여 현저히 촉진되였으며 그것은 반대로 전기화의 실현을 촉진시켰다.

우리 농촌에서 수리화, 전기화 및 기계화는 기술 혁명의 기본 내용이며 또한 통일적 과업이다.

수리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전기화에서 결정적 성과가 달성된 조건에서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추진시킬 것이 요구되였다.

《제 1차 5개년 계획이 수행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이 퇴치되고 자립적인 민족 경제의 기초가 확립되였으며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튼튼한 토대가 축성되였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명을 전반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놓았다》 (김 일성,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이에 기초하면서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1960년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의 완충기의 첫째가는 중심 문제를 농촌 경리의 기계화로 규정하고 이에 력량을 집중할 방침을 제시하였다.

12월 확대 전원 회의는 《평지대로부터 점차 산간 지대에로 기계화를 확대하며 가장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종합적 기계화에로 이행하며 대기계와 중 소 기계, 현대적 기계화와 간단한 소기계화를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김 일성)을 계속 견지하면서 우선 평안남도, 황해남도와 평양시는 1~2년 내에 개성시, 황해북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를 거의 동시에 그 다음으로 자강도, 량강도, 함경북도의 순서로 3~4년 내에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을 결정하였다.

농업 협동화가 완성된 유리한 조건하에서 적은 농기계 및 운수 수단으로써 기계화의 효과를 가장 빠르게, 크게 거두며 기계화의 완성을 최단 기간 내에 실현하기 위하여 당이 취한 이 방침은 또한 우리 나라의 자연 경제적 제 조건에 알맞는 유일하게 옳은 방침이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기술 혁명은 선진적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생산력 발전에 대한 능동적 반작용이 매우 강력한 유리한 조건하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또 진행되고 있다.

협동화 운동의 발전과 함께 관개 몽리 면적의 급속한 확장이 병행되였으며 협동화 운동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는 농업 협동 조합들 자체에 의한 관개 공사가 국가 투자에 의한 것보다도 더 광범히 전개되였다. 수리화에서 일대 전변으로 되는 밭 관개 체계의 확립도 협동화가 완성된 조건하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하였으며 또한 전체 인민이 총 동원되여 일거에 실현할 수 있었다.

농촌의 전기화에서 협동화 이전에는 전적으로 국가 전력에 의거하였었다. 그러나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만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농업 협동 조합 자체 발전소 건설은 나라의 전력을 보강하였으며 농촌 전기화를

촉진시켰다.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유일적 지배는 농업 기계화를 추진시키는 데 있어서도 광활한 길을 열어 주었다.

사회주의 생산 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조건하에서만 농기계 임경소는 농업 생산에 깊이 침투하여 기계화 작업의 종류와 량을 확대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앙양에 전력할 수 있는 농기계 작업소로 개편될 수 있었다.

또한 협동화가 완성되고 규모가 확대되였음으로 하여 기계화에 유리한 경지 조건이 조성되였으며 중공업으로부터 지방 공업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농기계 생산 및 수리 체계로부터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였다.

3

사회주의 건설에서 문화 혁명의 본래의 과업은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사상 의식을 개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낡은 사회에서 근로자들은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특히 농민은 무지와 몽매를 강요 당하고 있었으므로 이 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문화 혁명 수행 과정에서 또 하나의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우기 우리 나라가 지난 시기 오래 동안 군사 봉건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고 해방 후 남반부에서 미제가 가장 반동적인 사상적 독소를 발악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의 문화 혁명 과업 수행을 복잡하고도 간고하게 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과 기술에 기초하여 생산력의 부단한 발전을 보장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그것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자연 및 기술에 관한 인류의 지식을 계승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로부터 물려 받은 이 측면에서의 유산은 너무나 무참하였다.

해방 후 당은 곧 문화 혁명에 착수하여 문맹을 퇴치하였고 인민 교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전시에도 전후에도 민족 간부 양성 사업에 계속 력량을 경주함으로써 교육 문화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 당은 전체 농민들도 인민 학교, 중등 학교 졸업 이상의 일반 지식을 소유하도록 근로자 학교, 근로자 중학교와 통신 교육망을 창설 확장하였으며 매개 농촌 부락에서 기술 연구 크루쇼크를 광범히 조직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농촌에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건설자들을 대량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전체 농민들을 유식하고 기술이 있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으로 만들어 기술 혁명의 전반적 수행을 강력히 추동하는 것이 농촌 문화 혁명의 첫째가는 과업이다.

일제는 조선 인민을 일본화하기 위한 사상 독소를 주입시켰으며 민족적 자부심을 말살하려 하였고 공산주의를 중상 외곡하며 반쏘 사상과 침략 사상을 고취하였다. 미제는 해방 후 남반부에서 페륜과 악덕, 식인주의, 숭미, 공미 사상 독소를 덧붙여 류포시키기에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유구한 애국 전통과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3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하여 이룩하여 놓은 슬기로운 혁명 전통에 의하여 교양되였으며 이 고귀한 유산을 계승 받았다.

이 혁명 전통은 해방 후 민주 개혁 당시의 건국 사상 총 동원 운동, 전전 및 전후 시기의 계급 교양 사업의 본질을 이루었으며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된 현 조건하에서 공산주의 교양의 기본 내용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농민들 속에서 공산주의 의식은 날로 높아 가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개인 리기주의와 소소유자적 근성을 철저히 청산하고 집단주의와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더욱더 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민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퇴치하고 그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것이 농촌 문화 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는 과거 못살았기 때문에 농촌은 비위생적이였으며 농민들 속에는 되는 대로 살아 가는 유습이 뿌리 박혀 있였다.

협동화가 완성되고 농업 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된 결과 농민들의 생활 형편은 중농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로 제고되였다. 농촌에서 생산 건설과 문화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여 수만 동의 문화 주택이 신축되였다. 협동 조합마다 학교, 유치원, 탁아소를 비롯하여 상점, 진료소, 재봉소, 세탁소, 목욕탕, 리발소 등 위생 문화 후생 시설을 갖추게 되였다. 민주 선전실은 농민들의 학습과 교양과 문화 오락의 장소로 되였으며 농민들 속에서 군중 체육 사업과 예술 써클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거의 모든 리에 전기가 들어 갔으며 조합들의 대다수가 전화를 가설하고 라지오를 리용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조합들이 자체의 유선 방송 시설을 갖추게 되였다.

농촌에서 문화 혁명의 세째 과업은 바로 농민들의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된 조건하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일반 지식 및 기술을 공산주의 교양과 결부시켜 그것을 개인 및 사회 생활에서 구현시킴으로써 전체 농민들을 사회주의 근로자답게 잘 살 줄 아는 문명한 사람으로 되게 하는 데 있다.

오늘 우리 농촌에서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은 기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리화, 전기화에 뒤이어 농촌에 현대적 농기계 설비들이 대량적으로 공급되며 농업 과학 기술의 높은 성과들이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은 농민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일반 지식 수준을 급속히 높일 것을 긴절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유리한 조건에 의거하면서 우리 당이 인민 교육 체계를 개편하며 농촌 간부들의 양성 및 재교육 사업을 확대하며 농민들의 문화 과학 기술 지식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거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 혁명의 전면적 전개는 또한 농민들의 생활 양식 및 사상 의식의 개변과 과학 기술 지식 수준의 제고를 위한 극히 유리한 조건으로 되고 있다.

문화 혁명은 기술 혁명을 촉진시키며 기술 혁명이 또한 문화 혁명을 촉진시킨다. 이미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의거하여 문화 혁명과 기술 혁명을 동시에 급속히 추진시키는 것—이것이 우리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을 촉진시키는 유일하게 옳은 길이다.

❋ ❋

농업의 협동화가 완성된 후 유일한 사회주의 경제로 전변된 농촌 경리를 처음으로 지도한 지난 1년 간의 경험은 군과 조합 간에 중간 다리가 없는 조건하에서 군의 지도적 력량이 직접 협동 경리를 조직 지도해야 하며 모든 일'군들이 자체의 정치 리론 수준과 실무 수준을 제고하며 특히 경제 지식과 기술을 더욱더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촌 경리 분야에서도 《전 당이 학습하자》라는 당의 호소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이 고조되였다.

바로 이 시기에 김 일성 동지는 강서군 당 단체에 대한 구체적 지도 사업을 통하여 무엇이 문제이며 기본 고리를 어떻게 포착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방침에 근거하여 당 중앙 위원회가 취한 조치들과 그에 의하여 사람들의 정신 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는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촌 경리 분야에서 거대한 전변을 일으키고 있다.

농촌 경리 운영에서 계획화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였으며 농촌의 중요 력량이 농사에 집중되고 있으며 로력 조직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였다. 작업반 상금제가 실시되고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근로자들의 생산 의욕은 더욱 비등되고 있다. 농업 협동 조합에서 민주주의 관리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으며 군중들의 창발적 재능은 계속 혁신을 낳고 있다. 조합원들 속에서 공산주의 의식 수준이 더욱 제고되고 있다.

군 당 및 정권 기관 일'군들이 군내 농업 협동 조합들을 현지에서 고정 담당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수천 명의 농촌 경리 부문 과학 기술 일'군들이 역시 매개 조합에 2년 간 장기 파견되여 기술적 지도를 책임지고 있다.

농촌 경리에서는 공업에서와 함께 새로운 고조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로동 계급과 함께 어깨를 겨누어 쌍두 천리마를 타고 완충기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향하여 내닫고 있다.

한 귀국자의 수기

이 제도하에서 나는 행복하다

얼마 전에 본사 편집국은 일본에서 귀국하여 현재 청진 철도 공장 조립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 규만 동무로부터 조국에 와서 느낀 몇 가지 점들에 대하여 쓴 수기를 접수하였다.

필자는 당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그는 다만 오랜 이역살이와 로동 생활을 통하여 현실을 리성적으로 보며 판단하게 된 보통 로동자이다.

편집국은 그의 심장으로부터 우러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하여 아래에 게재한다.

본사 편집국

재일 동포들이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품 안으로 계속 돌아 오고 있다.

나도 일본 도꾜에서 살다가 제 11 귀국선으로 여기 북반부로 왔다.

우리 재일 동포들이 북반부로 돌아 오고 있는 것은 다만 조국이라는 데서만은 아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재일 동포들의 90% 이상이 남조선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다. 나도 역시 그런 사람의 하나이다. 우리는 고향을 사랑하며 못내 그리워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고향으로 갈 수 없었으며 가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자체가 가르친 길이다.

생각하면 지난 날의 이국살이는 실로 몸서리치는 암흑의 나날이였다.

나는 열네 살 때(1934년)부터 대전 기관구에서 로동 생활을 시작하였다. 하루 12~15시간에 달하는 고된 로동은 나로 하여금 《쉬운 일》을 찾아 일본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일본 도꾜의 이시까와지마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게 되였다. 그러나 그 곳에서의 로동은 그 강도에 있어서 대전 기관구에 비할 바가 아니였다. 나는 더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굴욕과 천대, 빈궁은 더 악착스럽게 뒤쫓았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8. 15 해방을 맞이하였다.

일본에 있던 우리 동포들은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 가려고 시모노세끼로, 하까다로 물밀듯 모여 들었다. 그러나 막상 가고 보니 부산으로 건너 가는 배를 탄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와도 같은 노릇이였다. 배는 적고 사람은 많다보니 한쪽으로 조금씩 건너 가면서도 숫한 사람들이 날과 달을 지체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날그날의 끼니에조차

자유롭지 못하던 우리들은 쥔 것, 입은 것을 다 팔아 먹고도 려비가 떨어져 혹은 부두에서, 혹은 로상에서 쓰러져 갔고 수십만의 동포들이 온 길을 다시 되돌아 서지 않으면 안 되였다.

나도 도꾜로 되돌아 갔다. 그러나 공장들은 문을 닫았었고 로동자들은 거리로 쫓겨 났었다.

실업자의 소굴로 유명하던 아사구사 《스미다 공원 다리》 밑이나 후까가와 《도요스 함바》에서 무엇이든 뒤집어 쓰고 밤을 새운 우리들은 첫 새벽부터 직업 소개소의 문 앞에서 무리를 지어 일'감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러나 직업 소개소가 알선하는 일공 로동이란 우리 실업자들의 수에는 비할 수조차 없었다. 결국 제비뽑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쥐여진 종이 쪽지를 편다. 마침 붉은 도장이 나오면 환성을 올린다. 어쨌든 그날은 얼마쯤 벌어 간신히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숫한 실업자들은 저들의 신세를 저주하면서 쓰레기통, 《혈액 은행》, 전당포 등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간다.

해방 후의 나의 《생활》은 이렇게 하여 시작되였다. 이리하여 브로카, 야미 장사, 고철 장사 등 닥치는 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이 15 여년을 하루같이 계속되였다. 아직 일본에 남아 있는 대다수 동포들의 《생활》도 바로 이러하다.

우리는 어쨌든 이러한 인간 생지옥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만 했다. 그것은 조국으로 돌아 오려는 념원과 련결되여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고향인 남조선으로는 갈 수 없었다.

나 개인의 사정만 보더라도 고향 대전에는 예순 세 살 난 늙은 어머니와 스물 여덟, 스물 여섯 살 나는 두 동생이 있는데 동생들은 모두 직업이 없다.

큰 동생은 본래 폐가 나빴다. 게다가 1956년에 괴뢰군에 끌려가 6개월 만에 유령처럼 되여 제대되였다. 어머님의 편지에 의하건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는 세상을 더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해에는 또 작은 동생이 괴뢰군에 끌려 갔다. 그리하여 지금 나많은 어머니와 앓아 누운 큰 동생은 아직 일본에 남아 있는 형이 간혹 부쳐 주는 책을 팔아 간신히 연명해 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비극은 우리 한 가정의 사정만은 아니다.

얼마나 많은 남조선의 형제들이 일'자리를 찾아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리 형제들이 굶주려 쓰러지고 있는가.

남조선에 비하면 일본은 그래도 《사람의 세상》이다. 부르죠아 출판물까지도 남조선은 인간 생지옥의 맨 밑창이라 부르고 있음에랴.

결국 재일 동포들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날로 륭성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 조국으로 돌아 오는 길만이 안정된 직업과 광명, 자유, 행복을 찾는 길이며 조국을 통일하고 고향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은 생활의 론리였다.

우리가 깨달은 이 론리는 일본에서 비교적 괜찮게 산다는 동포들에게 있어서도 매 일반이다. 경제 생활이 심히 불

안정스러운 자본주의하에서 누가 그들의 장래 생활을 담보하겠는가. 또 사실에 있어서 하루'밤 사이에 감쪽같이 파산을 당하고 실업자의 대렬에 떨어진 사람인들 얼마나 많았는가.

이리하여 오늘에 와서는 60만 재일 동포들이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조국에서 자기들의 삶의 희망을 보고 있으니 이 어찌 우연한 일이라 하겠는가.

청진항에 첫 발을 디디자부터 조국은 한량없이 두텁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포옹해 주었다.

17년 만에 다시 돌아 온 조국 땅! 강산도 사람도 모든 것이 변하였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훌륭하게 되였다.

청진시만 하더라도 4~5층의 훌륭한 문화 주택들이 즐비하게 일어서서 번화한 거리를 이루고 있다. 나는 25년 전에 청진에 와 본 일이 있다. 그때는 2~3층 집이면 제일 큰 집이였고 그것도 아주 희유한 형편이였다. 모든 것을 재'더미로 만든 전쟁에서 벗어난지 몇 해 안 되는 이 도시가 이렇게 웅장하게 일떠 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청진에 못지 않게 건설된 함흥시도 구경하였고 지난 5.1절에는 귀국 동포들의 관광단 성원으로 영광스러운 민주 수도 평양도 구경하였다.

평양의 거리들은 우리 관광단 성원들을 참으로 황홀한 세계에로 이끌어 갔다. 쓰딸린 대통로와 인민군 거리, 동평양의 청년 거리 등은 도꾜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거리들이다.

도꾜에서도 물론 전후에 건설이 진행되였고 고층 건물들이 일어 섰다. 그러나 고층 건물의 옆에는 으레 게딱지같이 초라한 판자'집들이 엎디여 있다. 이것은 흡사 거만하게 일어선 자본가의 발 밑에 구걸하는 실업자, 거지들의 가련한 모습을 련상시킨다. 그러나 우리 평양의 거리들은 얼마나 정연하게 5~6층 건물들이 빈틈없이 늘어서 있는가!

그 훌륭한 집들에 바로 우리 근로자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은 자기 로임의 1%도 안 되는 싼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도꾜에서는 보통 단간방 세'집을 하나 얻으려 해도 우선 《권리금》이 최소 한도 10만 원은 있어야 하고 매달 5,000~8,000원의 집세를 물어야 한다. 보통 남성 로동자들의 월 수입이 1만 5,000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얼마나 살인적인 집세인가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다 큰 청년 남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집 문제 때문에 시집장가를 못 가는 현상이 부지기수이다.

일본에서는 판자'집이라도 하나 지으면 큰 성공을 했다고 한다. 왜냐 하면 집터'값이 하늘에 닿을 지경이기 때문이다. 도꾜의 《긴자노 마찌》같은 데서는 땅 한 평에 220만 원이나 한다. 자연이 인류에게 무상으로 준 땅을 이처럼 비싸게 팔아 먹는 자들에게 어찌 《하느님》인들 무심할 수 있겠는가.

우리 조국의 건설은 농촌 건설, 공장 건설에 있어서도 도시 건설에 못지 않는 훌륭한 성과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르는 곳마다 공장이요, 이르는 곳마다 관개 수로요, 온 땅이 창조와 로력으로 들끓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청진에만 하더라도 김책 제철소, 청진 제강소, 청진 방적 공장 등 대기업소들이 다 완전히 복구되였으며 일제 시기에 비해 모두 몇 배씩의 놀라운 생산을 내고 있다.

이와 같이 공업과 농업이 대대적으로 발전되니 일본같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실업이란 찾아 볼 수 없다.

우리 재일 동포들도 오자마자 매 개인에게 직업이, 그것도 기능과 기호에 따라 알맞는 직업이 선택되였다.

나는 청진 철도 공장에서 15년만에 다시 용접봉을 들고 나의 기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였다.

나는 흥분된 감정으로 일터에 나갔다—십장이 시키기가 바쁘게 재빨리 일들을 해치우리라—마음 먹었다. 직장장이라는 사람이 첫 며칠 동안은 공장 사정이나 돌아 보라고 하기에 나는 조립 직장에서 주로 용접공들의 일하는 모습과 일'거리들을 보았다. 그런데 이 곳 《십장》들은 어떻게나 능란한지 온 종일 나타나지도 않고 큰 소리 한마디 치지 않는 데도 일들은 부리나케 해치워지고 있었다. 나는 하도 이상해서 동무들에게 물어 보려 했으나 혹시 어디 숨어 있던 《십장》이 눈치나 채지 않을가 두려워 그럴 수도 없었다. 나는 퇴근할 때에야 길'거리에 나와서 한 동무에게 슬그머니 이 일을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 동무는 큰 소리로 웃어대며 하는 말이 《동무는 옛말을 하는군, 우리 나라에서는 벌써 십장이란 말조차 잊은지가 오래라오》.

십장이 없다니? 과연 수수께끼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나는 특히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라는 데서 놀라운 사실을 보았다. 이 운동은 일종의 경쟁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제각기 일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도와 주고 서로 일깨워 주고 기술을 나누어 모두가 다 일을 잘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이 경쟁이라니?! 일본에서 경쟁이란 어떻거면 남이 잘못되게 하고 자신이 이기겠는가 하는 개싸움이 아니였던가.

어느 일요일에 나는 공장 동무들을 따라 지금 증축 중에 있는 청진역사에 사회 로동을 나간 일이 있다. 여기에는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 간부들도 모두 동원되였는 데 사람들의 일하는 열의는 오히려 보수를 받는 평상시의 로동에서보다 더한 것 같았다.

어린 소년들까지 와서 벽돌을 날라 주고 웅뎅이에 빠진 자동차를 밀어 끌어내 주고…하는 데는 참으로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꾜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길을 달리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교통에 대혼란을 주는 경우에도 돈을 내흔들기 전에는 누구 하나 자동차를 밀어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돈만 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래 살아 온 나로서는 리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어느날 나는 공장에서 상금 추천을 토의하는 모임에 참가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건 도대체 알 수 없는 광경이 아닌가! 일을 잘 해서 모두 응당히 상금을 받아야 할 동무들인데 서로들 사

양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나보다 송 동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송 동무에게 주자구…》.

그저 이런 식으로 딴 사람에게 서로 미는 것이다. 더우기 앞장 서서 일을 아주 잘 한 직장장이나 직공장 동무들은 거의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가!

지배인 동무나 당 위원장 동무는 언제나 우리 작업장엘 나와 보군 하며 손수 우리 로동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가정 살림까지 돌봐 주군 한다. 이것은 그들을 친어버이로, 허물 없는 동무로 대할 수 있게 해 주며, 하고 싶은 말이며 의견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본에서는 지배인 쯤 되는 《량반》이면 1년에 한두 번 보면 잘 보는 것이다. 그 으리으리하게 나타나는 《량반》들 앞에 누가 감히 말을 할 용기를 낼 수 있었던가.

나는 오늘에 와서야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체험하며 깨닫고 있다.

우리 조국에서 사람들의 친절성과 사랑은 교양 사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공장에 일본에서 돌아 온 강 두홍이란 동무가 있다. 이 동무는 일본에서 그저 좀 벌어서는 두두려 먹고 투전이나 하고 뒤'골목이나 찾아 다니던 《망나니》였다. 일본에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조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동무는 조국에 와서도 그런 버릇을 못 놓아 일은 하기 싫어하고 로임을 타서는 사흘이 멀게 두두려 먹고는 흥흥하였다. 간부들이나 동무들이 아무리 타일러도 그의 머리에는 들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귀국 동포들의 얼굴을 뜨겁게 하는 것이였다. 하도 답답해서 하루는 우리 일본에서 온 공장 친구들이 모여 토의를 했다. 우리는 그런 자식에게는 《스파르타식》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지었다. 이것이 당 위원회에 제기되였다. 당 위원장 동무는 이 말을 듣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동무의 벌적을 받아 줄 환경,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아껴 주고 꾸준히 설복하고 깨우쳐 주면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동의하면서도 반신반의하였다. 하지만 어쨌든 동의했으니 따뜻이 대해 주었다. 이곳 로동자 동무들, 간부 동무들은 더할나위 없이 그에게 깊은 배려를 돌려 주었고 꾸준하게 배워 주었다.

모든 것은 당 위원장의 말이 참으로 옳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몇 달 동안에 강 동무는 30년 가까이 쌓이고 엉킨 그 썩은 병'집을 고치기 시작했고 일에 열성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스파르타식》으로 들이댔더라면 물론 일시적 진통제로는 되였을지 모르나 고쳐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씌여지고 있지만 누구 하나 고쳐 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의 도덕, 질서는 더욱 문란해지고 더욱더 썩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의 현실 앞에서 경탄해 마지않는 것은 나만이 아니다. 지난 5. 1절에

귀국자들의 관광단 성원으로 평양에 갔을 때 각처에서 모여 온 동무들이 서로 나눈 이야기들에는 참으로 웃지 않을 수도 없고 울지 않을 수도 없는 놀랍고 신기하고 아름다운 사실들이 너무도 많았다.

평양에 있는 한 친구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일본에서 돌아 온 한 임신부가 병원에 입원하여 해산을 하게 되였다. 그런데 그는 줄곧 음식을 몹시 사양하였다는 것이다. 끼마다 밥을 몇 술 뜨다가는 말고 여러 가지 찬들이며 간식용으로 가져오는 사과나、과자같은 것은 전혀 먹지 않았다. 얼굴은 언제나 수심에 잠겨 있었다. 그를 시중 들어 주는 간병원은 그의 행동과 안색이 심상치 않아서 더 따뜻이 돌봐 주고 무슨 걱정되는 것이 있는가, 혹은 간병원 자신이 일을 잘 못해서 그러지나 않는가 하고 물어 봐도 그저 쓸쓸히 머리만 내저었다. 알고 본즉 그는 입원 해산비, 식사비 등을 매일매일 계산했던 것이다. 물론 그도 조국에서는 치료비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는 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병원에서 베풀어 주는 배려가 상상 이외로 극진하다보니 그는 그만 그 말이 의심적 해졌던 것이다—이렇게 대우를 잘 해 주는 것을 보면 아마도 숫한 돈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닌가—그는 곧장 이렇게만 생각하였던 것이다.

우리 귀국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십분 리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일본에서 입원 해산을 하자면 1주일에 적어도 7~8,000원은 치러야 하는 것이다. 집에서 1주일 간 해산 방조를 받는 데도 3,000원은 있어야 한다. 그 부인이 왜 어리둥절하지 않았겠는가!?

치료비를 모르는 나라,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조국에서 녀성들은 해산 방조에서만 나라의 큰 덕을 보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모든 조건들이 녀성들을 해방시키고 남녀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여 있다.

간단한 실례만 들어도 녀성들이 남자들과 조금도 차별 없는 로임을 받고 있으며 탁아소, 유치원들은 모두가 그들을 위하여 무상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러니 녀자들이 무엇 때문에 부엌에 처박혀 있겠는가. 우리 공장만 보더라도 어느 직장을 물론하고, 지어 복잡한 기술 로동 부문에까지도 녀성들의 비중이 아주 높다. 거기에 또 가정 부인들이 적지 않다.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하게 당, 국가 및 사회 단체 사업들에도 참가하고 있는데 무슨 회의 때에 나가서 토론이나 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들 하다.

일본에서는 녀자들이 사회 진출을 좀 해 보려고 하면서도 무엇보다도 애 때문에 도리가 없다. 일본의 탁아소들에서는 월 탁아비가 5~6,000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녀성들이 보통 일해서 받는 월 수입과 맞먹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직장엘 나가겠는가. 일본의 탁아소, 유치원들은 단순히 유한 계급 귀부인들의 기생 생활을 위한 도구로 될 뿐이다.

일본에서도 법적으로는 남녀 평등권이 보장되여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많이 론의들 한다. 그러나 녀자들이란 기껏해야 처녀 때에 방직 부문이나 기타 단추나 완구같은 것을 만드는 작업, 사무 부문같은 데서나 일할 수 있

을 뿐이라는 관념이 농후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선진적이다. 대체로는 아직도 집에서 부엌일이나 하고 애들이나 기르는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녀자들이 남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도 되나마나한 로임을 받아도 그에 대해서 누구도 크게 분노를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응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평등을 쟁취한 조국의 녀성들은 로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후대들의 교양에서도 높은 재능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조국 소년들의 실지 행동 자체가 증명해 주는 바이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나라의 훌륭한 교육 제도가 낳은 공로가 깃들어 있지만 역시 어머니들의 교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 얼마나 똑똑한가. 사회 정치 생활, 국 내외 정세, 예술과 문학 등등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부르는 모든 면에서 그들은 정말 일본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높은 수준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주인공들인 것이다!

오늘 세상도 좋지만 미래의 조국은 말할 수 없이 더 좋을 것이다.

나도 이 조국의 당당한 주인으로,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건설자로 된 것이다. 이제는 다시 나에게서 직업을 빼앗을 자도, 나의 로력을 착취할 자도 없다. 나를 위한 일이자 당과 조국을 위한 고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였다. 그저 힘이 부쩍부쩍 솟는다.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로동자가 어디 있으랴!

김 국 민

조선 로동당 력사 및 혁명 전통 연구 자료

장백 근거지에 있어서 조국 광복회 조직의 확대와 그의 역할

김 을 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1930년대 후반기 장백 일대에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였다. 장백 근거지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대자연 요새를 리용하여 설치한 밀영지들과 혁명 조직들이 깊이 뿌리 박은 주민 지대를 포괄하였다.

1936년 5월 5일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장백 근거지에서 조국 광복회가 결성되였으며 장백 근거지를 중심으로 조국 광복회 운동은 국 내외의 광활한 지역에서 조직 전개되였다. 실로 장백 근거지는 1930년대 후반기 조선 혁명의 근거지였으며 조국 광복회 운동 지도의 중심지였다.

장백 근거지에서의 조국 광복회 조직망의 확대

장백 근거지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을 확대 공고히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였다. 그것은 장백 근거지에서 이 조직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조선 혁명의 근거지 자체를 우선 공고히 하고 그에 의거하여 전 조선에 조국 광복회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야 하였으며 항일 무장 투쟁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였다.

그러므로 김 일성 동지는 장백 근거지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을 확대 공고히 하는 데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지도하였다.

조국 광복회 조직을 확대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조국 광복회의 강령을 인민 대중 속에 깊이 침투시키는 사업이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농민, 로동자, 종교인 등 각계 각층 인민 대중 속에 구두 선전, 출판물, 혁명 가요와 문학 예술 활동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는 전 인민적 항전에 힘 있는 사람은 힘을, 재산 있는 사람은 재산을, 총 있는 사람은 총을,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바쳐 조국 광복회의 기치하에 단결하여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강령의 기본 정신을 선전하였다.

이러한 선전 사업을 통하여 조국 광복회 강령은 장백 근거지 내의 인민들 속에 깊이 침투되였으며 그 조직망은 급격히 확대되였다.

장백 근거지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망은 각계 각층 인민들 속에 확대되였다.

조국 광복회 조직을 확대 강화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원칙들이 있었다. 그것은 조국 광복회의 매개 조직들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이미부터 각 지방에 있던 반일 조직들을 조국 광복회에 인입함과 동시에 각계 각층의 광범한 대중(로동자, 농민은 물론 청년, 학생, 도시 소상공업자, 민족 자본가, 반일적 지주, 종교인 등)을 개인의 자격으로 포섭하여 지방 실정에 적응한 조국 광복회 조직들을 결성 확대하는 것이였다. 또한

적의 탄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며 대담하게 적들의 합법적 기관 내에까지 들어 가서 조직을 확대하며 활동하는 것이다.

장백 근거지에서의 조국 광복회의 조직은 우선 당시 조선 인민 혁명군의 활동 지역이였던 무송현 일대에서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조국 광복회의 창건 직후인 1936년 5월 무송현 서강 리하덕(西崗 利河德)에서 김 일성 동지는 무송 일대에서 반일 투쟁을 하고 있던 동지들에게 조국 광복회 조직을 결성 확대할 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 후 무송 일대에는 무송현성 내와 대영(大營)을 비롯한 조선인 거주 지역에 조국 광복회 조직망이 포치되였다.

장백 근거지에서의 조국 광복회 조직은 장백현 일대에서 급속히 확대되였다. 그것은 1936년 8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혁명의 령도부가 장백 일대에로 이동하고 장백현 일대가 조선 혁명 령도의 총 참모부의 소재지로 되면서부터이다.

장백 일대는 반일 대중의 정치적 토대가 견고하였다.

이곳 주민의 다수는 1929~1933년 세계 경제 공황 시기 일제의 가혹한 략탈에 의하여 함남북 일대에서 실업 혹은 령락되여 이주하여 온 로동자들과 농민들로 구성되여 있었다.

또한 이 중에는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앙양된 로동 운동에 참가하였다가 망명하여 온 동지들도 수많이 있었다. 국내에서 망명하여 간 동지들의 지도하에 장백 일대에서는 적색 농민 조합 운동을 비롯하여 반일회 조직이 있어 지방적이고 수공업적인 반제 반봉건 운동들이 조직 전개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의 지도하에 곳곳에서 정치 및 문화 계몽 사업들이 진행되였다.

이러한 때에 김 일성 동지는 조선 인민 혁명군의 대부대를 인솔하고 장백에 나오셨다.

장백에 나오신 김 일성 동지는 권 영벽 동지를 비롯한 우수한 공산주의자들을 파견하여 장백 근거지에서의 조국 광복회 및 당 조직과 대중 운동을 조직 지도하도록 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권 영벽, 리 제순 동지들은 장백 일대의 조국 광복회 운동을 책임지고 그 조직을 확대함에 노력하였다.

장백 일대에서의 조국 광복회 조직은 우선 주민의 절대 다수를 이룬 농민들 속에 광범히 포치되였다.

장백 일대 주민의 절대 다수는 농민이였으며 조국 광복회 조직의 다수가 역시 농민들 속에 포치된 조직들이였다.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36년 10월부터 1937년 2월까지의 기간 장백현 상강구 산하 13개의 조국 광복회의 하부 조직들 중 12개의 조직, 중강구 일대에서 6개 지회 산하 38개의 분회들 중 36개의 분회, 하강구 일대에서 7개의 지회 산하 26개 하부 조직들 중 24개는 모두 농민들 속에 포치된 조직들이였다. 1937년 8월 장백현에 집단 부락이 실시되기 전까지 100 여개의 부락 중 농민들 속에 조국 광복회 조직이 포치되지 않은 곳은 거의 없었다.

*(상기 조직들의 수'자는 필자가 1960년 3월 현재까지 조사한 것임).

장백 일대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은 로동자들 속에도 뿌리 박았다.

장백 일대 주민 구성에서 산업 로동자는 거의 없었다. 로동자들의 다수는 계절 로동에 종사하며 자유 이동이 심한 림산 로동자들이였다.

일정한 지역에 고정적으로 있지 않는 로동자들 속에 조국 광복회의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조선 인민 혁명군 내의 지방 정치 공작원들은 이 로동자들 속에 조국 광복회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장백현에서 제일 큰 홍산 목재소(일본인 자본가 이마노〔今野〕란 자가 경영함)에는 수백 명의 로동자들이 있었다. 정치 공작원들은 1936년 11월에 이 목재소의 로동자들 속에 조국 광복회를 조직하였다. 최초에는 5명으로부터 시작하여 1937년 8월까지는 수십 명의 로동자들이 이에 망라되였다. 기타 림산 로동자들 속에도 조국 광복회 조직은 확대되였다.

장백 일대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은 종교인들 속에도 광범히 포치되였다.

장백 일대에 류포된 종교들 중 가장 영향력이 있은 것은 천도교였다. 장백 일대의 천도교도들은 국내 삼수, 풍산 등 지대와 련계를 갖고 있었다.

장백 근거지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이 급속히 확대된 것은 천도교도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지방 정치 공작원들은 천도교도들에게 조국 광복회 강령을 깊이 침투시켰으며 이리하여 이 교도들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조국 광복회 로선의 정당성과 또한 민족적 영웅으로 명성이 높은 김 일성 동지의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이 운동이 전개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열렬히 지지하여 나섰다.

천도교 장백현 종리원장이였던 리 전홍 로인은 자신은 물론 2명의 자기 아들까지 조국 광복회에 가입시켰다. 천도교도인 리 창선, 리 경운 등 수명의 애국적 청년들은 조선 인민 혁명군에 입대하여 훌륭한 투사로 육성되였다. 그들은 천도교도들 속에서 정치 공작을 진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중강구의 조국 광복회의 한 개 조직은 천도교도들로 조직되였으며 장백 일대 천도교도들의 절대 다수가 조국 광복회에 가입하였다.

권 영벽, 리 제순 동지들은 장백현 종리원을 통하여 국내 삼수,갑산,풍산 등 지역의 교도들에게 조국 광복회 강령을 침투시켰으며 삼수, 갑산, 풍산 일대 종리원을 지도하던 도정(道正) 박 인진(朴寅鎭)을 조국 광복회에 가입시켰다. 도정 박 인진의 조국 광복회 가입은 교인들 속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천도교 신파 수뇌부인 최 린 등 주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광범한 지역의 천도교도들 속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은 확대되였다. 조국 광복회에 망라된 일부 천도교도들은 직접 김 일성 동지를 방문하고 조국 광복회 강령을 지지하며 조선 인민 혁명군에 물심 량면의 원조를 줄 것을 결의까지 하였다.

장백 근거지에서의 조국 광복회 조직은 학생들과 적 기관 내에까지 심입하였다.

당시 장백현에 있어서 청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란 것은 오직 장백 농업 학교밖에 없었다. 농업 학교는 위만 장백 현공서 곁에 위치하여 있어 일제의 감시가 심한 곳이였다. 그러나 이 학교에도 1937년 초에 조국 광복회 대상동 지회의 공작에 의하여 조국 광복회가 조직되여 자기 조직을 점차 확대하여 갔다.

조국 광복회 조직은 적의 통치 기관 내에도 뿌리 박았다. 적지 않은 부락에서 적들이 신임하는 툰장들이 조국 광복회의 성원으로 되였으며 그를 책임자로 하여 그에 자위 단장, 협화회장 등이 망라되여 한 개 분회를 형성하기까지 하였다.

조국 광복회 장백현 위원회와 조선 인민 혁명군 내의 정치 공작원들은 주민 중 조선인이 다수이고 중국인이 소수인 장백현 일대에서 중국 인민들을 통일 전선에 인입하는 사업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정치 공작원들은 당시 동북에서 중국인들의 통일 전선 조직인 반일 구국회를 중국인들 속에 확대하여 14도구, 15도구, 간구자(干溝子), 삼남리(三南里) 등지에 조직하였다.

특히 조국 광복회 장백현 하강구회 위원이였던 정 동철 동지는 통일 전선 공작을 적군 와해 공작과 밀접히 결부시켰다. 정 동철 동지는 요방자 부락에 주둔한 정안군 한 개 반의 반장(반장은 왕 동무였는데 1938년 초 구국회 조직이 발각되여 사형 당하였다) 이하 전원을 장악하고 반장을 책임자로 하는 반일 구국회를 조직하였다.

이리하여 조국 광복회 조직과 구국회 조직은 1937년 봄까지 장백현 전 지역에 확대되여 각계 각층 인민들을 망라하였다.

사실상 장백 일대는 조국 광복회와 구국회 조직으로 일색화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장백 일대의 적들의 하부 통치 기구는 각 지방의 공고한 혁명 조직으로 인하여 공중 루각과도 같이 되였으며 혁명 조직의 위력에 의하여 통치 기구의 기능은 마비되였었다.

장백 근거지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은 무송, 장백 일대에서부터 확대되여 림강현 7도구 일대, 안도현 량강구 일대에도 포치되였다.

장백 근거지의 각계 각층 인민들 속에 조국 광복회 조직망이 확대됨으로써 조선 혁명 근거지는 일층 공고화되였다. 이는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의 정당성과 빛나는 승리를 보여 주는 것이였다. 장백 근거지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이 공고화됨으로써 장백 근거지를 혁명 기지로 조국 광복회 조직은 국내의 광활한 지역에 확대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국내에서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이 결성되였으며 함남 반일 투쟁 동맹, 함북 반일 동맹 등이 결성되고 강화 발전된 것이 바로 이를 잘 실증하여 준다.

실로 국 내외에 확대된 조국 광복회에는 불과 수개월 동안에 20 여만의 회원이 망라되였는바 당시 조선 인구 약 2천 400만에 대비하면 120명에 한 명의 조국 광복회 회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장백 근거지에서의 조국 광복회 조직과 회원들의 역할

장백 근거지에 있어서 조국 광복회 조직들은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 및 조선 인민 혁명군에 대한 원호 사업 등 거대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장백 근거지에 있어서 조국 광복회 조직과 **회원들의 중요한 역할은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에 크게 기여한 그것이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1930년대 후반기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의 중요한 방책의 하나로서 조국 광복회 로선을 제기하였다. 당시 조선에는 로동 계급의 전일적인 정치 조직으로서 직맹도 없었으며 농민들과 청년들의 전국적인 조직도 없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당 창건 준비 사업을 하여야 할 조국 광복회의 임무는 아주 중요하였다. 물론 조국 광복회 자체가 공산주의적 조직은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로동 계급의 독자성과 공산주의자들의 확고한 령도를 보장하면서 조선 인민 혁명군과 함께 당 창건의 조직적 골간을 육성하며 그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간고한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는 조직으로 되여야만 하였다.

장백 근거지 내 조국 광복회 조직들은 수 많은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리 제순 동지를 비롯하여 이미부터 장백 일대에서 활동하던 반일 투사들은 실지 투쟁을 통하여 불굴의 공산주의자로, 훌륭한 간부로 육성되였다. 이 핵심들을 골간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조국 광복회 회원들 속에 깊이 침투하여 처음에는 그들에게 민족적 의식을 제고시키고 점차 계급적 각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간고한 실천 투쟁 즉 일제 주구들의 청산, 인민 혁명군에 대한 원호 사업, 적 기관에 들어 가서 적정을 탐지하고 적을 와해시키며 좌우경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통일 전선 로선을 견지하는 등의 투쟁을 통하여 그들을 공산주의 투사로 육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장백 근거지 내 조국 광복회원들 속에서는 당 력량이 급속히 장성하게 되였다. 장백현에 있어서는 조국 광복회가 결성된 이후 4~5개월 동안에 조국 광복회를 통하여 육성 단련된 동지들로서 당 조직을 결성할 수 있게 되였다. 그 후 장백현 당 위원회 산하에 수십 개의 당 하부 조직들이 결성되였으며 수 많은 당원들이 이에 망라되였다.

장백 근거지에 확고한 당적 및 군중적 토대가 이루어진데서 이를 근거지로 국내의 광활한 지역에 조국 광복회 조직망을 확대하고 당 창건의 조직적 골간을 육성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에 있어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 것은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의 결성과 그의 활동이였다.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은 국내 조국 광복회의 지도적인 한 조직으로서 수 많은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였다. 소위 《혜산 사건》 당시 적들은 2,000명의 애국자들을 체포하였는바 그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들이였거나 조국 광복회에 속하여 교양 받고 활동하던 동지들이였다. 이 사실만 보아도 장백과 갑산 일대의 조국 광복회 조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육성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장백 근거지에서의 조국 광복회 조직과 회원들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조선 인민 혁명군을 물심 량면으로 원조한 것이다.**

장백 근거지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의 확대 강화는 항일 무장 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확고히 하였으며 조선 인민 혁명군과 인민들 간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였다.

조국 광복회 조직들은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조선 인민 혁명군의 후비 력량을 보충하는 사업에 전력하였다. 장백현 한 개 현에서만 하여도 조국 광복회 조직들은 1936년 10월~1937년 10월까지의 1년 동안에 수백 명의 회원들과 청년들을 조직적으로 조선 인민 혁명군에 입대시켰다. 이 중에는 마동희 동지를 비롯한 수 많은 영웅들도 있었다.

장백현 조국 광복회 조직들과 회원들은 김 일성 동지의 창의에 의하여 조직되였으며 지방 당 조직들의 지도하에 있은 생산 유격대 내에서 훌륭히 싸웠다. 생산 유격대는 반(半) 군사 조직으로서 혁명군의 큰 후비 력량이였다. 생산 유격대는 정상적으로 생산에 참가하면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주구들을 청산하며 혁명군과 함께 적 기관을 습격하며 또한 적정에 대한 정찰과 혁명군에 대한 물자 원호 사업을 조직적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장백 근거지 내 조국 광복회 조직들과 회원들은 조선 인민 혁명군에 대한 물자 원호 사업을 광범히 진행하였다.

장백현에서 백두산 아래 첫 동리라고 불리우며 김 일성 동지가 조선 인민 혁명군 부대를 령솔하고 국경 지대에 나오셔서 처음 류숙한 지양개에는 당시 150 여호의 농가들이 있었다. 이곳 농민들은 조국 광복회 회원들의 선봉적 역할에 의하여 1936~1937년 1년 동안에 수백 두의 쌀, 감자 및 밀'가루와 수백 벌의 고르뎅 양복을 비롯하여 수다한 의약품들을 인민 혁명군에 보냈다. 이곳 인민들은 물품을 구입하기 힘들 때에는 혜산에 있는 조선인 헌병을 리용하여 그 헌병으로 하여금 승용차로 물품을 장백으로 이송케 하여 혁명군에 보내군 하였다.

장백현 상강구 신흥촌 일대 조국 광복회 회원들도 불과 수십호밖에 되지 않는 주민들의 애국적인 열성을 동원하여 1936~1937년 1년간에 300 여두의 쌀과 200 여켤레의 솜버선, 150메터의 광목 등 수 많은 의약품과 군수 물자를 원호하였다. 특히 신흥촌 조국 광복회 회원들인 청년들과 부녀들은 1937년 여름 1~2전씩 모은 돈으로 훌륭한 축기를 만들어 조선 인민 혁명군에 증정하여 그들의 전투적 사기를 고무하였다. 당시(1937년) 장백 일대에는 약 4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였다. 이들 중 친일 주구들을 제외하고는 남녀 로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혁명군 원호 사업에 참가하였다.

장백 근거지 내 조국 광복회 조직들과 회원들은 적 통치 기관 내에 대담하게 들어 가서 공작하라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훌륭히 집행하였다.

장백현 조국 광복회 조직들은 장백현 내 적의 하부 통치 기관들을 거의 장악하였다. 상강구에서 20도구의 면장은 그곳 조국 광복회 분회장이며 공의로 있은 리 취 동지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적들의 신임을 받으면서 주민들 속에서 식량, 피복, 의약품을 혁명군에 보내기 위한 사업을 광범히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수집된 원호 물자를 계획적으로 혁명군에 보내군 하였다. 그는 또한 1937년 여름 박 금철 동지가 김 일성 동지를 상봉하고 돌아 오던 길에 20도구 경찰에 체포되였을 때 박 금철 동지의 신원에 대하여 보증 서고 석방케 하였다.

약수동 일대의 조국 광복회 회원들은 적의 사상 단체인 협화회에 모두 들어가서 활동하였으며 지양개에서도, 19도구에서도 구장의 직책은 모두 조국 광복회 회원들이 담당하였다.

중강구 치부동 지회에는 반절구 경찰서 내의 경찰놈들을 장악하고 적의 비밀을 정상적으로 탐지하였다. 중강구 왕가동 지회는 조국 광복회 회원으로 왕가동 툰장, 협화회장, 자위단장, 학교 교원들을 임명하였다. 적들은 왕가동 일대의 토벌에 동원되면 조국 광복회 중강구 회장인 서 인홍(적의 자위 단장을 책임짐) 동지를 비롯한 조국 광복회 회원들과 자기들의 토벌 작전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군 하였다. 조국 광복회 회원들의 이러한 활동에 의하여 적들의 일체 정보는 수시로 혁명군 사령부에 보고되였다.

적 기관 내에서의 사업은 하강구 일대 조국 광복회 조직들이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하강구 일대 거의 전 부락의 툰장과 자위단장과 교원들은 조국 광복회 회원으로 배치되였다.

조국 광복회 하강구 위원회의 선전 및 자위부의(자위부는 적군 와해, 적 기관 내 공작, 물자 원호 등 공작을 담당한 부서임) 공작을 담당한 정 동철 동지는 13도구의 적 기관을 몽땅 장악하였다. 그는 협화회장으로 조국 광복회 회원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한 촌장과 세관장, 경찰 서장, 요방자 주둔 정안군 반장과 결의 형제를 무었다. 정 동철 동지는 그들을 반일 사상으로 교양하여 항일 투쟁에 나서도록 하였다. 정안군 내에는 구국회까지 조직되였으며 경찰 서장도 항일 구국의 길에 나설 것을 약속하고 조선 인민 혁명군에 대한 군수품 원호 사업을 적극 보장하였다. 당시 중요한 물품들은 신갈파에 건너 와서야 살 수 있었는바 경찰 서장과 세관장은 량민증(良民證)을 가진 사람이면 국경을 무사히 통과시켜 많은 원호 물자들을 구입해 오도록 하였다. 경찰 서장과 요방자 주둔 정안군 반장은 수백 발의 탄알까지 조선 인민 혁명군에 원조하였다.

또한 1937년 봄 도천리에 나와 지방 정치 공작을 하던 김 정숙 동지가 정안군에 체포당한 일이 있었다. 적군은 고문 끝에 유격대원이 틀림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형에 처하려 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적군 려단이 장백으로부터 이동하게 되였다. 적군 려단은 장백을 떠나면서 사형 집행을 14도구 경찰서에 위임하였다. 정 동철 동지는 13도구 경찰서장과 토의하여 13도구 경찰 서장으로 하여금 김 정숙 동지의 사형 집행을 14도구 경찰서장으로부터 넘겨 받게 한 후 500명 이상의 소위 량민증장(良民證章)을 작성하여 군중의 련대 보증으로 석방케 하였다.

끝으로 장백 근거지에서의 조국 광복회 조직과 회원들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김 일성 동지의 통일적인 령도하에 국내의 대중 운동들이 조직 전개되도록 함에 있어서 인전대적 역할을 수행한 그것이다.

장백 근거지의 조국 광복회 조직들은 수많은 우수한 회원들을 육성하여 국내에 파견함으로써 김 일성 동지의 지도 로선이 국내에서 관철되도록 하였다.

❊ ❊

장백 근거지에 창설된 조국 광복회의 조직들은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지방 공작원들의 우수한 활동에 의하여 각계 각층 인민들 속에는 물론 적 기관 내에까지 뿌리 박고 광범한 인민 대중을 조직 집결시켰다.

조선 인민 혁명군은 장백 근거지의 조국 광복회 조직에 확고히 의거하여 국 내외의 광활한 지역에서 무장 투쟁을 한층 높은 단계로 발전시켰으며 적들에게 더욱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에서 후대들에 대한 교육

김 관 섭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1932~1935년)에서 후대들에 대한 교육 문제는 공산주의자들 앞에 제기된 중요한 혁명 과업의 하나였다.

그것은 후비 대오를 육성하여 혁명의 승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될 혁명의 미래를 위해서,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동들을 교육하여야 했기 때문이였다. 더우기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 내의 사정과 아동들의 형편은 이 문제를 더욱 긴절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에는 동만 일대 조선 인민들에 대한 일제의 대중적 탄압과 학살로 인하여 적 통치 구역으로부터 이동하여 온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일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32년도 동만 일대에서 근거지에 이동한 인민들(적들은 류랑민이라고 불렀다)은 3만 6,000여명에 달하였다. 근거지에 이동하여 온 주민들 중에는 아동들 특히 적들의 토벌에 의하여 부모 형제와 집을 잃은 아동들이 수많이 있었다. 아동들의 대부분은 근거지에 올 때까지 일제의 식민지 노예 교육 정책과 생활의 곤난으로 말미암아 학교에 갈 수 없었으며 공부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동들에 대한 교육 교양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혁명 의식으로 무장시킬 수 없고 혁명 대오의 강력한 역군으로 키울 수 없으며 투쟁에로 동원시킬 수 없었다.

후대들에 대한 교육 문제는 또한 자위대, 소년 선봉대원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무장으로 유격 근거지에 대한 적들의 토벌을 물리치고 근거지 방위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사정으로부터 더욱 긴절한 과업으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를 창설하는 초시기부터 혁명 임무의 한 부분으로서 후대들에 대한 교육 문제를 제기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유격 근거지에 수립된 새로운 사회 제도에 상응하여 악독한 일제의 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고 민주주의적 교육 제도를 수립하였으며 모든 인민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주었다. 더우기 토지 개혁을 비롯한 일련의 민주 개혁들의 실시로 말미암아 조성된 물질적 기초에 근거하여 근로 인민의 자제들에게 일체 면비(免費) 교육을 실시하였다.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에서 후대들에 대한 교육 사업은 전적으로 당시 혁명 임무 수행에 복종되였으며 아동들에게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선진적인 과학 리론을 우리 말과 우리 글로 배워 주어 그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한 불굴의 혁명 투사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교육 정책의 관철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인민 혁명 정부 내에 일체 교육 문제를 취급하는 교양부를 설치하였다. 교양부는 공산

주의 청년단, 아동단, 부녀회 등 사회 단체와의 련계하에 근거지 내의 학령 아동들을 조사장악하였으며 한편으로 유격대와 인민을 동원하여 비교적 안전한 지대에 교사를 건설하였다. 항일 유격대와 인민들의 애국적인 노력에 의하여 여러 곳에 많은 학교들이 건립되였다.

이와 같이 교양부는 교사 건축을 비롯하여 교육 사업의 제반 조건들을 보장하는 사업을 주로 하면서 교수 요강과 산수, 국어, 지리 등 일반 과목의 교재를 작성하는 사업도 담당수행하였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 교양의 지도와 집행에 대한 임무는 공산주의 청년단에 위임하고 학교 교원으로 공청원들을 파견하였다.

후대들의 교육 교양에 대한 책임을 공산주의 청년단에 위임한 것은 당시의 정세에서 전적으로 정당한 조치였다. 그것은 우선 후대들의 교육에 있어서 정치 교양이 위주로 되였다는 사실이며 다음으로 아동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정치 생활이 아동단 조직을 통하여 진행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동단에 대한 지도 책임을 지닌 공청이 후대들의 교육에 대한 지도를 책임 짐으로써 그들의 정치 생활과 학교 교육의 통일적 지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다.

정치 교양은 유격 근거지 내 후대들의 교육에 있어서 위주였다.

일반적으로 맑스-레닌주의는 정치를 떠난 교육이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교육은 소여 시기의 국가와 계급들의 일정한 목적에 복종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레닌은 《교육 분야에서의 우리의 사업도 역시 부르죠아지를 타도하기 위한…투쟁》이며, 《…생활 밖에 즉 정치 밖에 서 있는 학교는 허위이며 위선》(전집, 제 28권, 90페지)이라고 지적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와 그 주구 지주, 예속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조선 인민의 민족적 독립과 근로 인민의 사회적 해방을 위한 혁명 임무의 한 부분으로서 교육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를 실천하였다.

아동들을 혁명의 후비 대오로 육성하자면 그들에게 혁명에 필요한 모든 것 특히는 계급 투쟁에 관한 지식과 혁명적 실천력을 배양하여야 하였다. 이것은 정치 교양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었다. 유격 근거지의 구체적인 혁명 정세가 또한 후대들에 대한 교육에서 정치 교양을 위주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산 혹은 령마루,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근거지 내 인민들의 생활은 전투적이였다. 적들은 근거지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봉쇄하였으며 악랄하게 토벌을 감행하였다. 하루에도 수십차에 걸치는 적의 토벌대와 싸워야 하였다. 근거지 내에서 생산을 비롯한 모든 활동은 적과의 가렬한 투쟁 속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후대들에게 튼튼한 계급적 립장과 혁명적인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였다. 또한 아동들을 훌륭한 혁명가로 육성하며 그들로 하여금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준비시켜야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청년들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준비시킨다는 것은 청년들을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민주 사상으로 교양하며 과학적 선진 리론으로 무장》(선집, 제 2권, 287페지)시키는 것이라고 교시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후대들에 대한 교양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재 작성을 비롯한 모든 사업에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정치 교재는 계급 교양을 중심 내용으로 하여 공청에서 작성하였다. 일제에 의하여 부모를 잃은 아동들의 처지와 그 아동들의 용감한 투쟁을 교재에 반영하였으며 《제국주의는 왜 나쁜가?》, 《지주와 자본가는 우리를 어떻게 착취하였는가?》,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쏘련 삐오네르의 생활》 등등과 같은 문제들을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게 교재에 반영시켰다.

국어, 산수, 음악 등 일반 과목의 교재에도 근거지 내 아동들의 가장 가까운 생활을 반영시켜 교양적 의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국어나 산수 과목에서 유격대와 인민이 협력하여 적과 싸워 이긴 내용이라든가, 생산 활동에 대한 정형들을 수준별에 따라 교재에 반영하였다. 이 밖에도 1주일에 1~2회 이상의 정치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지주와 농민》, 《신식과 구식》 등의 제목을 광범히 취급하여 아동들의 정치 수준을 제고시켰다.

과정안에 의한 학과 학습 외에 후대들에 대한 교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회 정치 생활이였다.

아동들은 아동단에 망라되여 조직 생활을 하였다. 학교 교원들은 동시에 아동단 지도자였다. 교원들은 부모를 잃은 아동들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아동단 생활을 지도하였다. 학생들의 일과에서 아동단 생활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아침 기상하면 조기 운동과 주위 청소를 하며 식사 후는 분단 모임을 가지였다. 이 모임에서는 그날 아동들이 하여야 할 과업들, 우선 학습에 참가할 준비며, 군사 훈련과 생산에 참가할 문제들을 토론하였다. 일과를 끝마치고 저녁이면 또 분단 모임을 가지고 그날 사업을 총화하였다.

아동단 생활은 아동들을 혁명적인 규률성과 정직성과 강한 투지의 소유자로 육성함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아동들은 점차 자기들의 계급적 처지를 알게 되여, 일제와 그 주구 지주, 예속 자본가들을 증오하고 새로운 사회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자로 되였으며 열렬한 혁명 투사로 육성되였다.

다음의 몇 가지 사실들은 자기의 계급적 처지를 깨닫고 혁명적 규률성과 강한 투지의 소유자로 육성된 아동들의 훌륭한 품성을 잘 보여 준다.

아동들은 적들의 토벌에 의하여 학교가 소각 파괴되면 어른들을 도와 학교를 다시 세우고 공부를 하였다. 그들은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으로 1년에도 수십 차례씩 당하는 이러한 난관을 이겨냈다. 아동들은 적들의 토벌과 근거지에서의 기근으로 인하여 초래된 헤아릴 수 없는 큰 곤난도 용감히 이겨냈다. 1935년 초부터 1,000 여명의 군중이 집결되여 살던 처창즈 근거지는 적들의 포위 속에서 혹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였다. 그러나 아동들은 락심하지 않고 굳센 의지로 기운을 내여 《고동하》에서 고기와 개구리를 잡아 식량을 보충하였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참고 이것들을 전투하고 돌아 온 유격대원들에게 드리군 하였다.

또한 1934년 왕청현 다홍왜 유격 근거지에서 적 토벌대에 의하여 많은 아동들이 학살당한 일이 있었다. 이 때 11세 나는 한 아동이 적에게 체포되여 백초구 경찰서에 끌려갔다. 경찰놈들은 혁명 조직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그에게 야수적인 고문을 가하였다. 혁명 조직의 비밀을 생명으로 지켜야 한다는 정신으로 교양된 이 아동은 끝내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 경찰놈들은 모진 고문 끝에 그를 총살하였다. 최후 순간 그는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고 장렬히 희생되였다. 이 영용한 사실은 아동단원들과 전체 인민을 원쑤에 대한 증오와 격분으로 불러 일으켰으며 당시 국제 공산당 기관지 《공산 국제》에까지 게재되였다.

또한 1933년 연길현 왕우구에서 있은 일이였다. 14세인 리 화순은 황 순희와 함께 유격대들이 로획한 물품을 왕우구에서 북동으로 운반하던 도중 휴식하다가 적에게 발각되여 체포되게 되였다. 때마침 황 순희는 현장에 없었다. 적들은 리 화순에게 3시간이나 악형을 가하면서 같이 가던 동무가 간 곳을 대라는 것이였다. 그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놈들은 그를 총살하였다. 리 화순은 자기의 희생으로써 전우이며 동지인 황 순희를 구원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과 생산 로동의 결합은 근거지 내 후대들의 교육에서 기본 방침으로 되였다.**

교육과 생산 로동의 결합은 후대들을 혁명 대오의 한 성원으로 참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다. 아동들의 생산 로동에의 참가는 비단 그것이

교양적 의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근거지 내에서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생산 로동에 참가하는 문제는 과정안에 포함되였다. 아동들은 오전에 교내에서 학과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일과에 따라 실습 혹은 생산 로동에 참가하였다. 일부 아동단 분단 성원들은 자기들의 실습지에서, 혹은 농민들의 농토에 나가서 일을 하였으며 다른 분단의 아동들은 산에 가서 약초를 캐여 약품의 부족을 보충하였다. 한편 산나물을 캐여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병공창 부근에 있는 아동들은 직접 무기 제조나 수리하는 로동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폭탄 제조에 필요한 철, 철선, 양철을 수집해 오며 화약 원료도 구해 왔으며 권총을 자체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들은 근거지 내의 실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로동에 참가하였다.

생산 로동을 통하여 아동들은 학과 시간에 습득한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로동을 사랑하며, 로동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공산주의적 품성을 배양하였다. 또한 생산 로동에 참가함으로써 아동들은 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단련되였다.

군사 교육은 유격 근거지 내 후대들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였다.

장기적이고 간고한 무장 투쟁을 통해서 일제를 타승하여야 할 혁명 임무로부터 또한 근거지 내 전체 인민의 무장으로 유격 근거지를 방위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후대들에 대한 교육 문제에서 군사 교육은 필연적으로 제기되였다. 아동들은 혁명의 후비 대오로서 원쑤들과의 투쟁에 직접 간접으로 참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그들에게 적과 싸우는 방법과 수단을 직접 가르쳐 주지 않고서는 그들을 적과의 싸움에로 준비시킬 수 없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후대들에 대한 군사 교육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동단의 생활과 학교 교수 요강에 군사 교육 문제를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아동단 조직은 그것이 사실상 군사 조직과 같은 것이였다. 아동단 생활에는 엄격한 규률이 지배하였다. 조직으로부터 받은 위임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집행하고야 마는 투쟁 정신과 엄격한 규률이 아동단 생활의 규범으로 되였다. 아동들은 항상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배낭을 지고 다녔으며 40~50센찌메터의 곤봉을 무기로 메고 다녔다. 아동들은 군사 학습과 훈련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였다. 군사 학습에서는 보초의 임무와 그의 수행 방법, 수기를 가지고 신호하는 방법, 무기 사용법, 정찰하는 방법, 비밀을 고수하는 방법, 통신 련락 방법 등이 체계적으로 취급되였다.

아동들은 보초를 서면서 적이 침공하여 오면 신호기 혹은 불'빛으로 유격대에 련락을 하였다. 아동들은 통치 구역에 나가 적정을 정찰하여 오기도 하고 근거지에 들어 온 간첩을 적발하기도 하였다. 1932년 연길현 생경리 남구에서는 7~8세 되는 아동들의 경각성 높은 활동에 의하여 근거지에 잠입한 간첩 15명을 일망타진한 일도 있었다.

아동들은 전투가 있을 때면 유격대원들과 함께 싸우거나 혹은 높은 고지에 모여서 노래를 불러 적의 사기를 저락시키는 한편 유격대원들의 사기를 고무 추동하군 하였다. 1933년 봄 왕청현 방어 전투시 아동들은 자신들이 만든 권총으로 신호하여 련락을 제때에 보장하여 주었으며 한편 나무에 큰 못을 박아 자동차 길에 매몰함으로써 토벌하려 들어 오는 적의 자동차 3대를 고장나게 하여 유격대원들의 전투 승리를 보장하였다. 물론 이 밖에도 아동들이 전투에 직접 간접으로 참가하여 빛나는 성과를 달성한 사실은 허다하다.

아동들은 군사 교육을 통하여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는 정신을 배웠으며 자기 조직을 무한히 사랑하며 집단주의 정신으로 무장된 혁명의 믿음직한 대오로 육성되여 갔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육친적 배려와 지도는 후대들의 교육 교양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무장 투쟁의 간고한 조건하에서도 후대들의 교육 교양에 각별한 배려를 돌렸다.

김 일성 동지는 학교에 자주 나가서 후대들에 대한 교육 교양 사업을 친히 지도하시였다.

1933년 10월 왕청현 대북구에 있는 학교에 나가신 김 일성 동지는 모든 형편을 일일이 보신 다음 아동들에게 요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였다…우리 조국을 빼앗고 부모를 학살하며 너희들을 고아로 만든 일제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없애 버려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모두 마음을 굳게 먹고 몸을 튼튼히 하며 유격대로 나간 아버지 오빠 아저씨 누나 형님들을 생각하면서 모두 공부를 잘 해야 한다. 너희들은 우리 조국의 꽃봉오리이며 앞날의 기둥이다. 너희들이 명랑할 때 우리도 명랑하고 너희들이 잘 자라면 우리는 기운이 솟는다. …어서어서 무럭무럭 커서 조국의 훌륭한 일'군이 되여라!…

김 일성 동지의 이 말씀은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자라나는 후대들에 대한 기대와 교양에 대한 총적인 표현이기도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직접 후대들의 교양을 지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격대원들로 하여금 아동들의 피복, 식량, 학용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 주도록 하였다. 성시 습격 전투 시에는 일부 대원들에게 전적으로 아동들의 피복과 일용품을 로획할 임무가 분공되군 하였다.

공청원인 교원들은 김 일성 동지의 지도와 배려에 고무되여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후대들에 대한 교육 교양 사업에 충실성을 다하였다.

교원들은 적들의 토벌에 의하여 학교가 소각되면 다시 짓거나 그렇지 못한 때에는 숲 속과 눈 속에서라도 막을 치고 아동들의 학습을 지도하였다. 적들의 토벌이 격심하여 아동들을 한 곳에 모일 수 없을 때는 곳곳에 분교식으로 학교를 설치하고 수십리 길을 오고 가고 하면서 일과 대로 교육을 보장하였다.

교원들은 아동들의 일상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 주었다. 학생들의 의복을 빨아 꿰매 주기도 하며 몸이 어지러우면 씻어 주기도 하였다. 적의 토벌에 의하여 아동들이 부상 당하면 업고 다니면서 치료를 하였고 밤을 새워가면서 간호하여 주었다.

학용품과 필묵이 떨어지면 교원들은 숯으로 먹을 만들고 털로 붓을 만들어서 아동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부족되는 용지 대신에 봇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것으로 글을 쓰도록 하였다. 교원들은 눈 혹은 모래판을 리용하여 학생들의 글 쓰기를 가르쳤다.

교원들은 모든 생활에서 학생들의 모범이였다. 학생들에 대한 교양 사업의 성과 여하는 교원들의 품행과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태도 여하에 많이 달려 있다. 유격 근거지 내에서의 학교 교원들의 모범적 활동은 모든 생활에서 아동들의 거울로 되였다.

❊ ❊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에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민주주의적 면비 교육의 실시는 조선 인민의 력사에서 특히 교육사상에서 빛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동만 일대의 유격 근거지에서 실시한 교육 사업의 경험에 기초하여 일제 식민지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며 청소년들에게 우리 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인 면비 교육을 실시할 것을 조국 광복회 강령에서 정식화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 공산주의자들의 교육 사상과 그 방침은 오늘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으로, 교육 정책의 지침으로 되여 우리 인민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 있다.

서적 해제 및 평론

고귀한 민족적 유산

—《삼국사기》 역주본 출판에 대하여—

채 희 국

금번 과학원 출판사는 《삼국사기》 역주본(상, 하)을 출판하였다.

《삼국사기》는 우리 나라 삼국 시기(기원 1~7세기 전반기)와 통일 신라 시기(기원 7세기 후반기~10세기 전반기)의 력사를 서술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 중의 하나이다.

《삼국사기》는 우리 민족이 과거에 걸어 온 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문헌일 뿐더러 인류 력사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는 문헌 중의 하나이다.

《삼국사기》를 포함한 우리 나라의 고문헌들은 전부 한문으로 기록되여 있다. 이것은 오늘날 이 문헌들의 연구에 적지 않은 애로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문헌들을 번역 출판하는 사업은 민족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삼국사기》가 편찬된 후 815년이 경과한 오늘, 우리 민족은 처음으로 우리 말로 된 《삼국사기》를 가지게 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의 유구하고도 찬란한 력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로 된다. 이로써 《삼국사기》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통한 력사 연구는 대중화되고 우리의 고문헌들이 인민의 두터운 사랑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 *

《삼국사기》는 기원 1145년(고려 왕조 인종 23년)에 왕명으로 당시의 저명한 유학자 김부식(金富軾)에 의하여 편찬된 정사(正史)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당시 정사 편찬의 기본 형식으로 되여 있었던 《기전체(紀傳体)》를 채용하여 편찬되였다.

《삼국사기》는 총 50권으로 구성되여 있는 바 그 중 《본기(本紀)》는 28개권, 《렬전(列傳)》은 10개권, 《지(志)》는 9개권이고 나머지 3개권은 《표(表)》로 되여 있다.

《본기》에는 왕에 관한 것과 왕의 정치에 관한 기사 및 당시 국가적 사건에 관한 기사들이 년대기적으로 서술되여 있다. 《렬전》에는 당시의 유명한 인물들에 대한 전기가 실려져 있다. 《지》에는 종교, 음악, 복식, 주택, 관직 등에 관한 제반 제도가 포함되고 있으며 특히는 당시의 지방 행정 구역을 취급한 지리지가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여 있다. 《표》는 년대표의 내용을 가진 것이나 3국의 왕대를 한 개의 표 속에 종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삼국사기》에 수록된 력사적 시기는 우리 나라가 세 나라로 갈라져 있던 시대이다. 그

러므로 저자는 세 개 나라들의 력사를 개별적으로 서술하여 한 개의 책으로 편찬하였다. 그 중 신라에 관한 부분이 제일 자세하게 서술되여 있다.

《삼국사기》를 편찬함에 있어서 김 부식은 당시에 남아 있었던 3국 시기에 관한 문헌들을 광범히 리용하였다.

이미 우리 나라에는 3국 시기부터 력사 편찬 사업이 발전하고 있었다. 고구려에서 일찌기 《류기(留記)》가 편찬되였고 이에 기초하여 600년에는 리 문진에 의하여 《신집(新集)》이 편찬되였으며 백제에서는 375년 고흥에 의하여 《서기(書記)》가, 신라에서는 545년에 거칠부에 의하여 《국사(國史)》가 각각 편찬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구삼국사》가 편찬되였다.

《삼국사기》는 《구삼국사》에 기초하여 편찬되였으므로 비록 12세기의 저작이기는하나 그가 가지는 사료적 가치는 매우 충분한 것이다.

3국 시기의 문헌들이 거의 인멸된 오늘날 《삼국사기》는 《삼국유사》와 더불어 3국 시기의 력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사료이다.

《삼국사기》를 통하여 우리는 1~10세기에 해당하는 1,000 여년 간의 우리 나라의 력사적 발전 과정을 해명할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의 고대 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하여 원시 공동체 제도의 붕괴 과정에서 국가로 형성되여 왔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3국이 각각 발전하는 과정과 3국 간의 호상 관계가 서술되여 있고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우리 나라 력사가 전진하는 방향이 어떠하였으며, 그 결과가 3국의 통일로써 총결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삼국사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사료적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바 1~10세기의 1,000 여년 간의 우리 나라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을 연구함에 있어서 《삼국사기》는 둘도 없는 사료로 된다.

《삼국사기》는 우리 선조들의 고상한 애국주의 전통에 대하여도 잘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 외래 침략자들이 침입하였을 때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인민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영웅적으로 싸워 이겼는가를 생동성 있게 서술하였으며 조국 방위를 위하여 영용하게 싸운 애국자들의 업적들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다. 612년 고구려 인민의 《살수 대첩》, 645년의 《안시성 대첩》의 서술에서 이와 같은 실례를 볼 수 있으며 7세기 후반기 3국 인민들의 반당(反唐) 공동 투쟁의 승리 과정에 대한 서술에서도 우리 선조들의 애국주의 정신을 충분히 볼 수 있게 한다.

《삼국사기》는 당시의 피압박 인민들의 계급 투쟁에 대하여서도 적지 않게 서술하고 있다. 착취자, 억압자를 반대하여 항상 투쟁의 기'발을 든 3국 인민들의 다종다양한 계급 투쟁의 형태들과 그들이 달성한 성과들이 여러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다.

때로는 폭동의 형식으로, 때로는 토지에서 리탈하는 형식으로, 때로는 다른 나라들에로 집단적으로 도피하는 방법들을 통하여 계급 투쟁을 전개한 우리 선조들의 혁명적 기개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군도(群盜)》, 《류리(流離)》 등의 기사에서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볼 수 있다.

《삼국사기》는 3국 시기의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우수한 문화적 전통에 대하여도 많은 기록을 보이고 있다. 우수한 학자, 유명한 예술가, 문화적 창조 사업의 과정들이 수록되여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민족 문화가 발전하는 과정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외에도 《삼국사기》를 통하여 3국 시기의 국제 관계, 대외 무역의 발전, 농업, 상업, 수공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나마 알게 된다. 또 3국 시기의 선조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설화, 민속, 인민들의 기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도 적지 않게 보인다.

《삼국사기》는 이와 같이 풍부한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한편 적지 않은 부족점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삼국사기》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 제한성을 정확히 리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삼국사기》가 편찬되던 12세기 중엽의 우리 나라는 국내외 정세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고려 국가는 봉건적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급하였다. 《삼국사기》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편찬된 것으로 철두철미 봉건적 유교의 이데올로기로 일관되여 있다. 그러므로 《삼국사기》는 사회 발전, 계급 관계의 서술이 심히 소홀한 한편 왕의 《선정(善政)》을 평가하기에 급급하였다.

또한 《삼국사기》의 저자는 사회 발전, 계급 관계, 인물 평가 등에 있어서 유교의 교리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을 적지 않게 외곡한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제한성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적 리론에 의한 분석을 가함으로써만 이 책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이 역주본에는 원문이 첨부되였고 주석과 교감표까지 첨부되였는바 이는 독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줄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 역주본에는 부족을 느끼는 점도 적지 않다.

우선 번역된 문장이 완전한 현대 문장으로 되여 있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은 데서 그렇게 말하게 되며 또 번역한 용어에서 어려운 한문 어휘가 아무 주석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불만을 주고 있다.

물론 개별적인 어휘에서 아직 정확한 고증이 되여 있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역자는 독자에게 만반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휘를 더 알기 쉽게 사용하고 주석을 보다 친절하게 달아 줄 여지는 아직도 많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실례는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앞으로 학자들이 《삼국사기》에 대한 연구 사업을 보다 심화함으로써 이러한 결함들을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 제 6호 (루계 175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 • 1960년 6월 15일　　인　쇄 • 1960년 6월 10일

ㄱ—31310　　값 50전

서 적 안 내

력사적 유물론이란 무엇인가

4×6 판, 예정 페지 280 페지, 예정 값 80 전,
발행 부수 100,000 부, 발행 예정 6월

이 책은 이미 발간된 《철학 지식》 중에서 력사적 유물론에 해당한 부문만을 한 책으로 묶어 그 내용을 더욱 보충하고 수정 가필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력사적 유물론에 대한 기본 문제가 우리 당 정책 및 우리 나라 현실 문제와 결부되여 쉽게 계통적으로 서술되여 있다. 그러므로 철학을 처음 학습하는 독자라도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으며 자기의 정치 리론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은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무엇인가》와 함께 이 책을 읽음으로써 맑스주의 철학의 기본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자기 맡은 혁명 과업을 더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경제 발전 개관 (1)

4×6 판, 예정 페지 330 페지, 예정 값 75 전,
발행 부수 10,000 부, 발행 예정 7월

이 책은 쏘련, 중국, 몽고, 월남의 경제 발전을 소개한 책이다. 여기에는 이 나라들의 지리적 개요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 및 앞으로의 경제 발전 전망들이 상세히 서술되여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독자들에게 형제 나라들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하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도움으로 될 것이다. 동시에 형제 나라 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강화하게 할 것이다.

이상 서적들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

1960년 6월